

# 교통카드 환승? Oh Yes!

1  
FREE

시내버스 환승 무료화 제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청소년, 학생 모두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고 승차한 뒤 1시간 안에 다른 버스로 갈아탈 경우 승차 횟수에 관계없이 갈아타는 버스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환승시 무료로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시내버스와 시내버스간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형 시내버스)에 갈아 탈 경우에만 가능하고 좌석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문 2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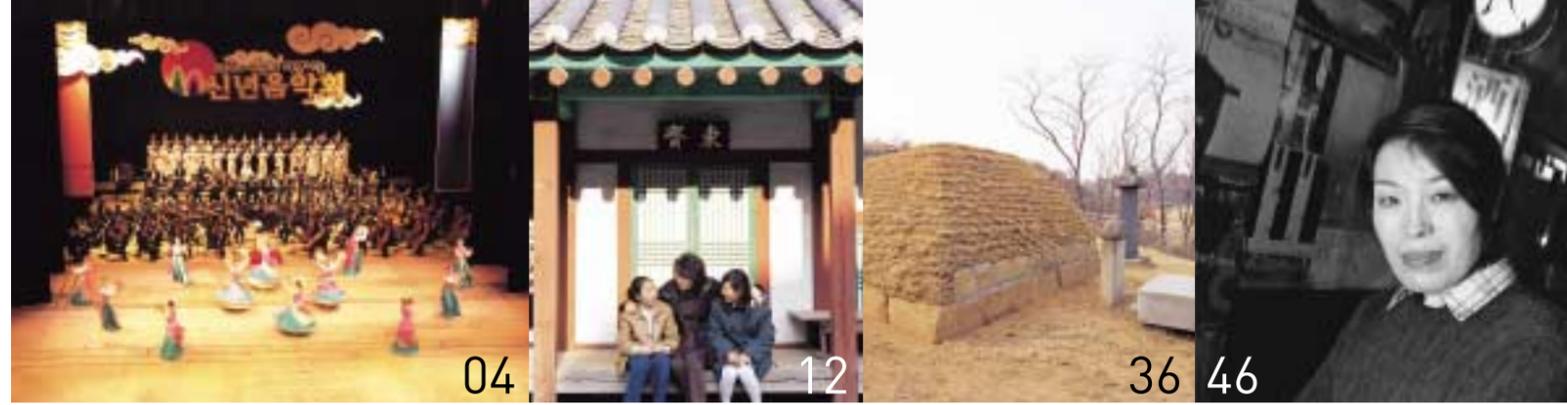


# 뱃살을 줄여라

KBS 2TV 건강 프로그램 <비타민>의 국민건강캠페인 '뱃살을 줄여라' 인천편이 지난 1월 11일에 방영되었다.

인천남구보건소 앞에서 진행된 녹화는 우리시 각 구·군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별히 안상수 시장이 운동복 차림으로 직접 출연했다. 안 시장은 1000명당 과체중자가 292명으로 전국 최고의 비만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천을 제1의 건강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허리둘레를 측정하기도 했다.

우리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0개 구·군 보건소에 체력관리실, 운동부하검사실, 영양교실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뱃살센터를 개설했다.



- 02窓 2004 | 뱃살을 줄여라
- 04현장속으로 | 사랑과 희망나눔 2004 신년음악회
- 08사방이 온통 즐길것 천치
- 10Enjoy@문학경기장 | 우리집 스포츠센터로 내가 '짹'
- 12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② | 부평향교
- 16in. Stage | <안치환 & 자유> 콘서트 외
- 20시정포커스 | 전국최초 시내버스 환승시 무료화제도 시행
- 22정보뱅크 | 주말농장 분양
- 25브리핑 | 현장간부회의
- 26우리고장 에듀테인먼트 ④ | 아벨전시관
- 28굿인천 굿뉴스 | 교통안전분야 평가 인천이 '최우수' 외
- 32의정소식 | 인천광역시의회 신년 인사회 외
- 33청공청해 인천의제 21 뉴스
- 34과거로의 시간여행 | 개조 창건의 선봉이 됩시다
- 35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도원·돈포유
- 36그래 어디든 가보는거야 | 이색기행·tomb tour
- 40테마가 있는 골목 ② | 경동 & 종합문화예술회관역사 웨딩거리
- 42Youthzine ② | 인하사대부고 컴퓨터 동아리 '밋꿀'
- 44파이팅 인천 | 창단 앞둔 인천유나이티드FC
- 46사람하나 만나고 싶다·두번째 사람 | 마정호 씨
- 50굿모닝 어진이네 | 시내버스 무료환승 제도 편
- 52Healthy Life | 헌혈 바로알기
- 53독자마당 | 겨울방학의 의미 외
- 56Info Box | 근로자 사회교육생모집 외
- 59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⑩ | 윤주철 <전등사 동문 설경>

##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2 (통권 122호)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2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박상영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영화 촬영 명소로 떠오른 흥예문 (사진·김성환)

# ‘사랑’의 선율로 여는 ‘희망’의 갑신년



## SCENE #1 1월 15일 오후 3시 대공연장 리허설 무대



어두운 조명, 객석에 들성들성 앉아 있는 관계자들, 자유로운 복장의 연주자들...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은은한 선율이 흐르다가 싶더니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강렬한 비트가 터져 나온다. 음악의 주인공은 금노상 씨가 지휘하는 시립교향악단. 오늘 7시에 있을 '2004 사랑과 희망나눔 신년음악회'의 막을 열 주 페(Franz von Suppe)의 서곡 '시인과 농부' 최종 리허설이 한창이다. 객석에 앉아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시립교향악단의 신동환 단무장에게 '시인과 농부'를 택한 이유를 물었다. "가난한 농부의 농심을 담은 곡으로 연주시간은 10여분 밖에 안되지만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시작으로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등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라 시민들이 새해, 새 소망을 담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잘 어울려서"라고 대답한다. 작년 10월에 이미 기획된 이번 공연은 한달 가량의 연습을 거쳐 무대에 올려지는 것이란다.

같은 시간 시립무용단 연습실에서는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메구소리'로 무대에 오를 시립무용단원들이 분장에 한창이다. 메구소리는 시립무용단이 2002년 초연했던 작품으로 이번 공연의 피날레로 선택된 것이 더 뜻깊다.

## SCENE #2 오후 4시 30분 대공연장 입구

고요하던 대공연장 정문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 사람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공연티켓을 좌석권과 바꾸려는 사람들이다. 일찍 온 만큼 좋은 좌석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좌석권을 받은 한 아저씨는 아직 공연장 입장이 안된다는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애원을 거듭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 좌석배치도를 확인하고는 다시 더 좋은 좌석으로 바꿔달라고 애교섞인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우리는 대공연장 좌석 1524석에 맞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다. 예년의 경우 예약 후 공연장을 찾는 사람이 70% 정도 수준이라 나머지 30%는 유관 기관과 문화예술인, 인천시립교향악단을 사랑하는 모임 등에 초대권을 배포했다.



좌석권 3장을 손에 들고 있는 정순천 씨 (40 · 연수구 동춘동)는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신년음악회를 본다든가 매니아. 신년음악회가 너무 감동적이라는 그녀는 작년에는 공연시작 1시간 전에 왔다가 줄이 너무 길어 고생을 해서 올해는 3시간 전부터 나왔단다. 엄마와 함께 온 정중운 군(7세)은 다섯 살 때부터 신년음악회에 엄마를 따라다니던 덕분인지 “음악회, 너무 재밌어요”라며 맑은 웃음을 짓는다.

초대권도 없고 인터넷 예약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 빈자리가 생기면 입장시켜 드리겠다”는 직원의 말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두 시간 여의 긴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 SCENE #3 오후 6시 30분 휴게실

공연시작 30분전. 가족을 기다리는 이, 매점에서 간단한 스킨으로 허기를 달래는 이... 매점 앞에서 만난 이관형 씨는 아이들 방학을 맞아 숙제도 할 겸 가족이 함께 왔단다. 공연장 출입문 앞에서는 우리시 직원들이 공연순서가 인쇄된 팸플릿 안에 뭉가를 끼워 넣느라 분주하다. 설날을 맞아 도호부청사에서 펼쳐지는 행사 안내 팸플릿이다.

신년음악회 팸플릿을 받아든 이들이 하나 둘씩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고 공연장에서는 벌써 오늘 연주될 작품에 대한 작품해설이 진행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기본에 충실한 이들이 팸플릿에 시선을 고정해 작품해설을 듣는다.



### SCENE #4 오후 7시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 홍유경 씨가 무대에 등장해 새해 인사를 나눈다. 첫 곡으로 주폐의 서곡 ‘시인과 농부’가 연주되자 술렁거렸던 객석은 어느새 고요해지고 관객은 음악 감상에 몰입한다. 첼로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선율과 현악기와 관악기의 화답으로 부드러움을 주었다. 소프라노 강인혜 교수의 연주와 테너 강무림 교수의 강렬한 ‘열정’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갑자기 “브라보”라는 외침이 쏟아지기도 한다. 이어 3인의 소프라노 김인혜, 김향란, 서운진 씨가 멋진 화음으로 귀에 익은 이탈리아 가곡을 들려주자 객석에선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가 하면 박자에 맞춰 박수로 화답한다. 어린이 관객들은 팸플릿을 들여다보며 곡명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휘자 금노상 씨는 연주회 중간, 오늘 연주회에 자리를 같이한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해 신경철 의장과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 부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시의원들을 시민들에게 인사시켰다.

같은 시간 대공연장 2층에 자리잡은 ‘문화어린이방’은 열 너댓명의 아이들로 붐빈다. 문화어린이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들의 관람분위기 조성 and 편의를 위해 공연 중에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맡아서 보호해 주는 곳이다. 두 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다. 공연을 보고 있는 엄마를 대신해 젓먹이 아기를 연신 어르고 있는 젊은 아빠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잠깐의 휴식후 이어진 2부 공연은 우리나라 전통 음악으로 꾸며졌다. 세계 최장시간(9시간 20분) 최연소 판소리 연창공연으로 기네스 북에 오른 김주리 어린이가 춘향가 중 ‘사랑가’와 수궁가 중 ‘수궁잔치’를 들려주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81호 강준섭 · 김애신 · 나연주 씨가 심청전 중 ‘뽕파전’을 보여줘 관객들의 신명을 돋웠다.

공연의 피날레는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메구소리’로 장식됐다. 국악 작품을 교향악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연주에 맞춰 시립무용단의 상모돌리기, 바라춤, 반고춤 등이 어우러진다. 신명나는 장단과 화려한 춤사위로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고 발장구를 친다. 여기에 이경섭 사물팀과 노종선 풍물단 등 200여 명이 어우러져 가히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주었다.



### SCENE #5 오후 9시 10분 대공연장

2시간 여의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함성은 그칠 줄을 모른다. 여기저기서 ‘앵콜’ 하는 외침이 들리고 연주자들이 모두 퇴장하고 서서히 막이 내릴 때까지 박수소리가 이어진다.

객석에 앉아 시종 긴장된 표정으로 연주를 감상하다 끝내 눈물을 흘린 서현선 씨(41 · 연수구 옥련동).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티켓도 없이 공연장에 왔다가 어렵게 들어왔어요. 3인의 소프라노가 펼친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음색이 다른 세 분이 만들어내는 화음은 특색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인 메구소리는 종합예술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공연을 보면서 공연히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너무 베풀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삼삼오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대공연장을 빠져나가는 시민들. 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신년음악회의 잔잔한 선율은 일년 내내 사랑과 희망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글\_정경애 · 사진\_김성환

Enjoy @ 문학경기장

# Inside

## 사방이 운동 즐길 것 천지

그곳이 시민들을 위한 종합스포츠레저타운으로 확 달라졌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한국축구의 성지, 인천문학경기장.

아침 일찍 부터 밤 늦게 까지 하룻 동안 지루할 겨를 없이

문학경기장에서 노는 나는, 문학경기장族이다.



1



6



2



3



4



5



7



8



9



10

### @보조경기장® \_ 트랙 뛰는 나는 '아침형인간'

천연잔디그라운드에 400m 짜리 육상트랙. 문학경기장의 주경기장과 형태가 똑같이 만들어진 보조경기장을 돌면서 아침을 맞자.

### @컨벤션센터® \_ 전망좋은 방에서 세미나 OK!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서부터 가족이나 동창모임, 돌잔치, 결혼식, 혹은 귀한 이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격조있게 꾸미고 싶다면 후회없을 장소. 통유리를 통해 주경기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골든볼홀, 문학홀, 월드컵홀 등 다양한 방이 마련되어 있다.

### @X-Game장® \_ 공부 스트레스, 한방에 날려!

청소년들이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허공에 말끔하게 날려보낼 수 있는 곳. 스틸을 마음껏 만끽하게 충분한 50m×30m짜리 13종의 시설을 갖춘 게임장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다.

### @문학레저파크® \_ 축구경기,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인천문학레저파크의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찌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 흘려버리자. PC방, DVD방, 네일케어, 스포츠 마사지 외에도 매일 밤 9시면 생음악이 연주되고 토요일 오후엔 노래자랑도 열린다. 찜질방에 누우면 주 경기장의 푸른 운동장이 훤히 바라다 보여 경기가 있는 날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 @휘트니스센터&골프클럽® \_ 여기서 몸 만들면 나도 '몸짱'

얼짱에 이어 몸짱이 뜨는 요즘 문학경기장 휘트니스센터는 몸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을 지녔다. 러닝머신을 비롯해 각종 헬스 기구가 완비된 휘트니스 센터에서 인천최고의 몸짱으로 거듭나보자. 12타석을 갖춘 실내골프장은 누구나 부담없이 낫샷을 날려볼 수 있는 곳.

### @주변 공원 \_ 4월이면 철쭉제 향기에 젖어

4월 24일부터 5월 9일 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철쭉꽃 축제가 열린다. 경기장 안에 심어 있는 철쭉꽃 10만 7천여 주 외에도 팬지, 붓꽃 등 십여종의 꽃이 만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 @월드컵 기념관(홍보관)® \_ 월드컵의 환희를 다시 한번

월드컵, 그날의 감동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곳. 2002년 월드컵 16강 진출과 4강 신화 창조의 교두보인 문학경기장의 모형과 시설 소개, 그리고 월드컵 축구스타와 사진찍기, 기념품 판매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체육공원 \_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다

할아버지는 게이트볼장에서 몸을 풀고 손자는 거리농구대에서 친구들과 미니농구게임을 한다. 체력단련시설에서 몸을 푼 아빠와 엄마는 배드민턴장에서 부부대항 경기를 펼친다.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는 체육공원의 풍경. 아이들은 휴게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기다린다.

### @주경기장® \_ 푸른 잔디 위에서 영화도 보고...

3월 말 부터 시작되는 K리그 경기가 끝난 후 저녁시간부터 가족들을 위한 무료영화가 상영된다. 온 가족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전광판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 @인공암장® \_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

극기와 인내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곳. 40m×20m 짜리 인공암벽을 오르 내리다 보면 어느새 도전정신이 무럭무럭 솟아난다.

### @문학 Youth Center \_ 인천 청소년들 모여~

새 봄, 인천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장이 문학경기장 안에 마련된다. 약 300여 평의 실내공간엔 연극연습실, 탁구장, 동아리방, 사이버실, 국악연습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등이 마련된다. 또 상설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어느 때 이곳을 찾더라도 젊음을 발산할 수 있다.

## 우리 집 스포츠센터로

## 내가 '잡'니다

인천문학경기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곳을 우리집만의 스포츠센터로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하기 나름.



**@배드민턴교실** \_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4월~12월  
주고 받는 셔틀콕 속에 새록 새록 정이 피어난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부터 12시 사이에 열리는 배드민턴 교실에서 그 기분을 만끽해보자.

**@단학기공** \_ 문학정 4월~10월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호흡과 명상, 그리고 기수련을 통해 푸는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6시부터 7시 까지 한시간 동안 보조경기장 옆 문학정에서 기공의 세계에 빠져볼 수 있다.

**@문학경기장 운동처방 · 스포츠 마사지 무료센터**

\_ 보조경기장 지하 수송자 대기실 4월~12월  
운동하기전 꼭 들러야 할 곳,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전문가로 부터 처방을 받은 뒤 운동을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운동 때문에 생긴 피로와 부상을 미리 막는데도 한 몫.

**@아침건강체조교실** \_ 보조경기장 트랙 주변 4월~10월



운동도 여럿이 함께 하면 더 신난다. 아침 건강체조교실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을 자기 몸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게 전문가가 도움을 준다. 월~금 매일 오전 6시 부터 7시 까지 몸을 푼다.

**@문학경기장 조깅 동호회** \_ 보조경기장 4월~12월

나는 달린다. 왜, 달리는게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달린다. 4월 부터 12월 까지 매일 저녁 7시 보조경기장을 찾으면 누구나 함께 이 레이스에 동참할 수 있다.



**@무료자전거학교** \_ 문학경기장 1층 주차장 2월~12월

지난 해 주부 500여 명을 졸업시키며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던 자전거교실이 학생반도 확대해 자전거학교로 새롭게 문을 연다. 2월 2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한 기당 한주에 5일 동안 2주씩 강습을 한다. 오전반은 10:00~12:00, 오후반은 13:00~15:00 까지 운영할 예정.



**@어린이 영어 축구 클럽** \_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4월~11월

인천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축구 클럽은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강습 예정. 초등학교 1·2·3학년반(월·수 16:00~18:00) 25명, 4·5·6학년반(화·목 17:00~19:00) 25명 등 두 개 반으로 운영된다. 유일한 유료(요금 5만원) 프로그램.

강좌신청문의 \_ 모든 강좌는 자전거학교(2월 23일 개강)를 제외하고 4월 6일 개강한다. 수강료는 어린이 영어축구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 문학경기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456-3020~8)

# ‘공자 왈 맹자 왈’ 들리는 듯 해요

문학산 자락에 자리잡은 인주초등학교에 다니는 윤재희 어린이는 올해 졸업반이다.

엄마 최미숙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재희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엄마와 함께 하는 문화재 탐방을 신청했다.

이번 문화재 탐방에는 재희와 3학년 때부터 단짝인 박지은 어린이가 함께 했다.



재희와 지은이가 둘러볼 곳은 계양산 남쪽에 자리잡은 부평향교다. 두 친구의 문화재탐방을 도와주기 위해 문화유산해설사 이성호 씨가 동행해 주었다. 부평향교로 가는 차안에서 그녀는 두 아이에게 부평향교를 아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지 수다 꽃만 피웠다. 간신히 “인천향교는 배웠어요”라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이어 아이들에게 인천에 몇 개의 향교가 있는지 아느냐고도 물었다. 인천향교밖에 모른다던 아이

들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1개요”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향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천에는 인천, 부평, 강화, 교동향교 등 4개의 향교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 허리 잘린 향교, 가슴아파라

‘향교길’이라고 적혀있는 이정표를 따라 골목길로 접어들었지만 주택가가 이어져 있을 뿐 향교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 멈춰 섰다. 어느새 부평향교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향교가 있는 건물과 향교의 대문이란 수 있는 홍살문 사이에 도로가 뺨 뚫려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에 의해 외삼문 앞에 도로가 뚫리고 빌라 등 주택이 들어서면서 고즈넉한 향교의 옛 멋이 줄어들었다. 이를 본 재희는 “향교야,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부평향교 순례를 시작했다. 도로를 건너가니 홍살문이 서있다. 홍살문은 궁궐이나 제사 공간 앞에 세우는 것으로 둥근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위에는 지붕없이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박아 놓았다. 홍살문 앞에는 세우지 얼마되지 않은 듯한 비석이 하나 서 있다. 한자공부를 했다는 재희에게 읽어보라고 했더니 “대





1 부평향교 외삼문 앞에서 선 박지은·윤재희 어린이와 최미숙 씨 2 지금의 기숙사 역할을 하던 동재와 서재  
3·4 문화유산해설사 이성호 씨의 열띤 설명이 이어지고... 5·6 고즈넉한 분위기의 부평향교에서 포즈를 취해보는 참가자들

(大)·소(小)·인(人)·음~몰라·개(皆)·하(下)·마(馬)라고 제법 그럴 듯 하게 읽어 내려간다. ‘大小人員皆下馬 - 누구나 이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뜻으로 세워 놓은 하마비(下馬碑)다. 향교는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지방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유교 이념을 배우는 배움터였다. 또한 공자와 중국성현,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져 설령 임금님이라고 할 지라도 이 앞에서는 말에서 내렸다고 한다.

### 나도 여기서 공자 왈 맹자 왈?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 앞에 섰다. 외삼문은 문이 세 개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가운데 문으로는 임금님이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왼쪽 문으로 나와야 한다. 뚫어지게 열려있는 문을 밀고 향교 안으로 들어가니 먼저 명륜당이 친구들을 맞는다. 향교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인 명륜당과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다. 평지에 향교를 세우는 경우에는 대성전을 앞에 두고 명륜당을 뒤에 두는 전묘후학(前墓後學)의 형태로, 향교가 구릉지에 있을 때는 명륜당을 앞에 두고 대성전을 뒤에 배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墓)의 형태로 지었다고 한다. 제사 지내는 공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선조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부평향교는 계양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대성전을 더 높은 곳에 배치하고 명륜당을 앞에다 둔 전학후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명륜당을 지나 대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동·서재(東·西齋)가 있다. 이곳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거하던, 지금의 기숙사 같은 곳이다. 옛날에는 신분의 차이가 심해서 양반의 자제는 동재에서, 중인들의 자제는 서재에서 생활했다. 아이들은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디서 묵었을까” 하는 얘기를 나누며 진지한 표정이 된다.

### 대성전 앞에도 서보고

이어서 대성전에 도착했다.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중국 성현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대성전 앞에는 관세위(盥洗位)라는 돌이 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정결한 마음으로 손을 씻는 곳이다. 대성전으로 오르는 계단도 역시 세 개로 구분돼 있다. 가운데 계단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만 다닐 수 있다고 하자 아이들은 가운데 계단은 밟으면 안된다며 뛰어넘느라 야단이다.

대성전의 양쪽으로는 동·서무(東·西廡)가 자리잡고 있다. 원래는 이황, 이이, 조광조 같은 우리나라 18성현의 위패를 모시던 곳인데 한국전쟁 때 불에 탄 향교를 복원하면서 우리나라 성현들도 중국 성현들과 같이 모시자는 의견에 따라 지금은 대성전에 위패를 같이 모셨다. 그리고 동·서무는 제사에 필요한 제기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쓴다.

향교를 모두 둘러보고 시청으로 돌아가는 길, 두 아이에게 소감을 물었다. “책으로만 보았던 향교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니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충실한(?) 소감과 함께 “향교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라며 어른들의 잘못을 꼬집는 답변도 되돌아왔다. 아이들의 바램처럼 우리의 문화재가 소중하게 지켜지고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가져본다.

글\_ 정경애 · 사진\_ 김성환

## 인재 길러내던 배움의 산실



부평향교는 1127년(고려 인종 5) 계양산 남쪽 기슭인 계양구 오류동 산 4번지에 세워졌다. 기록에 따르면 부평향교에는 일반적인 향교건물 배치인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동·서재 이외에 전사청, 공수고 등이 있었다. 건축양식은 대성전, 동·서무, 동·서재는 맞배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고 명륜당은 팔작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병자호란(1636)의 난리통에 불탄 문묘건물을 1688년(숙종 14)에 현재의 위치에 새로 짓고 호란 당시 공촌동에 피신시켰던 열성위판(烈聖位版)을 옮겨와 개교했다. 1943년 일제강점기 때 문학향교가 부평향교로 강제로 합쳐져 인천향교로 불리다가 해방 후 다시 문학향교(현재 인천향교)와 부평향교로 각각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교시기로 볼 때는 부평향교가 인천향교 보다 한 발 앞선 것이다. 매년 이곳에서 봄, 가을에 문묘 석전대제가 병행되고 있다.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단 1일과 15일은 관람할 수 없고 단체관람의 경우 전화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541-2924)

**찾아가는 길** \_ 인천지하철 경인교대역에서 6번 출구로 나와 교대 정문에서 앞쪽으로 난 '향교길'로 200m가량 들어가면 바로 나온다. 시내버스 1번, 32번을 타면 경인교대 입구에서 내릴 수 있다.

 이 지면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찾아가 보고 싶은 문화재와 가고싶은 날을 적어 편지(우편번호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편집팀 앞, 전화 440-2072)로 보내주세요. 특히 강화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을 드립니다.



안치환 & 자유 콘서트

## ‘立春’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한  
라이브 무대



〈안치환 & 자유〉와 함께 2004년 인천의 봄이 시작된다. 〈안치환 & 자유〉가 인천에서 4년 만에 라이브 무대를 갖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선공연으로 수입금 전액이 그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진다.

외국인 근로자... 누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줄까? 어느 누가 그들의 슬픔을 느낄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은 자유와 행복을 바라던 과거 우리들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닐런지...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미소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안치환 & 자유〉는 무대 위에서 요란하게 튀지 않는다. 대중이 고민하는 곳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삶의 진지함을 그대로 노래와 공연에 옮겨가듯이 그들의 공연에는 소박한 웃음이 묻어난다. 그냥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나는 멋을 가진 무대이다.

그들의 공연은 소박하지만, 한국 최고의 공연이다. 쉽 없이 내뿜는 그의 노래와 연주, 빈틈없는 공연연출은 그들이 대한민국 최정상급의 공연임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

설령 재미만을 쫓는 음악팬에게는 외면 받을지 몰라도, 삶에 대한 진지함과 함께 사랑이 묻어있는 그들의 공연을 보면, 처음 공연을 접한 이들도 그들의 공연에 독특한 재미를 느끼고 돌아간다. 군더더기 없는 한국 최고의 공연임을 자부하는 〈안치환 & 자유〉, 그들이 다시 찾아온다. 봄과 함께...

일시 \_ 2004년 2월 8일(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40,000원, S석 35,000원, A석 25,000원  
예매 및 문의 \_ 극단 미추홀 812-4123



### 가족 캐릭터뮤지컬 〈짱구는 정말 못말려〉

짱구의 못 말리는 익살과 화려하고 창의적인 캐릭터들의 무대 연출로 어린이들이 만화 속 세상으로 직접 초대된 기분을 느끼게 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어린이용 뮤지컬이다. 교육극단 〈보물상자〉는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책임기 싫어하는 짱구를 통해 책임기의 재미와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등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한 작품이다.

일시 \_ 2월 21일(토)~22일(일)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할인 8,000원(할인권차참시, 전화예약시)  
예약 및 문의 \_ 080-550-2020, 813-8040

### 어린이 뮤지컬마당극 〈흥부와 놀부〉

이 마당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통해 조상들의 생활에 깃든 열과 전통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외국의 명작동화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래동화의 원작을 최대한 살리고 여기에 현대감각에 맞게 음악을 편곡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통놀이를 가미하여 어린이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마당극이다.

일시 \_ 2월 6일(금) ~ 8일(일)  
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7일·8일 12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8,000원 / 예매 6,000원  
공연문의 \_ 극단 〈중원극회〉 뮤지개어린이 뮤지컬컴퍼니  
(02)3474-4620

### 창작어린이뮤지컬 〈하나와 여러개의 차이는 뭘까?〉

극단 〈인천〉은 아이들이 원자력이라는 꿈의 대체에너지를 뮤지컬이라는 흥미로운 수단으로 재미있게 이해시키고 지혜롭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창작 어린이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달리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계몽적이며 교육적인 요소에 뮤지컬이라는 흥미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작품이다.

일시 \_ 2004년 2월 25일(수) ~ 27일(금)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8,000원 (회원 5,000원 단체 4,000원)  
예매 및 문의 \_ 501-0515

### 보물 찾아 닳을 올려라~ 가족 뮤지컬 〈보물섬〉

지난해 〈신밧드 어드벤처〉와 〈동화나라의 마리〉를 공연했던 폴라기획은 올해 어린이들과 더욱 친숙해 질수 있는 가족 뮤지컬 〈보물섬〉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동화속 처럼 따뜻한 이야기 〈보물섬〉은 어린이들에게는 웃음과 감동을, 어른들에게는 잔잔한 여운과 향수를 떠올릴수 있는 공연이다.

짐 호킨스는 플린트라는 유명한 해적선장이 남긴 보물지도로 받게 되고 리브리 선생과 함께 보물을 찾아 '이스파놀라'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난다. 항해가 무사히 끝날수 있을까? 그리고 보물은 찾을수 있을까? 출항준비, 닳을 올려라.

일시 \_ 2월 14일(토)~15일(일)  
14일 : 오후 2시, 4시  
15일 : 12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0,000원 /할인 6,000원  
공연문의 \_ 864-8052



## 필리아합창단 정기 공연



2001년에 창단한 필리아합창단이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첫 스테이지를 '주의 크신 은혜' '아베마리아' 등

성가곡을 아카펠라로 열고 이어 귀에 익은 흑인영가와 독일, 한국의 가곡을 들려준다. 후반부에서는 '애! 목동아' '사냥꾼의 합창' 등 필리아합창단의 애창곡을 부른다. 인천여고 에로스합창단이 찬조출연한다.

일시 \_ 2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무료(초대권)  
공연문의 \_ 017-356-8301

## 소리빛 음악회



초록세상을 꿈꾸는 사단법인 한국녹색회가 '소리빛 음악회'를 마련했다. 피아노 3중주, 이중창, 그리고 늘푸른 중창단의 중창을 비롯해 한국녹색회 인천어린이합창단 및 인천합창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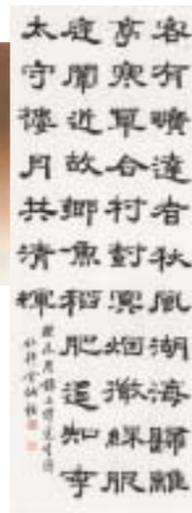
창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려 아름다운 음악으로 초록세상을 꾸민다.

일시 \_ 2월 29일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30,000원 / 20,000원  
공연문의 \_ 017-261-3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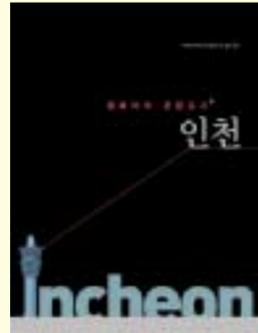
## 대한민국제물포서예문인화서각대전

인천예술문화원이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제물포서예문인화서각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선을 보인다. 이번 대전은 총 1159점이 출품된 가운데 767점이 입상했다. 이번 전시회는 서각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서양희 씨와 한문부문의 김병환 씨 작품 등 수장작이 전시된다.

일시 \_ 2월 20일~26일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문의 \_ 432-4210



## 인천이 담긴 책



### 시정 화보집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

인천시정 화보집 2004년판이 발행되었다. 일종의 '인천 사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보집은 전체 140 쪽으로, 기존의 화보집 크기를 과감히 탈피한 국판 변형사이즈(가로 15cm × 세로20cm)로 콤팩트하게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어제의 발자취부터 경제자유구역 현장, 아름다운 우리고장의 4계절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본지 사진 담당 김성환 씨의 카메라에 담긴 작품 150여 컷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이 화보집은 한글판 뿐 아니라 영문·중문판으로도 발행된다. 이 화보집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공보관실(본관 215호) 또는 <굿모닝 인천> 편집실(본관 421호)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 전 시 회

〈창립20주년 제40회 도연재 작품전〉  
2월 1일~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봄·여름·가을·겨울전〉  
2월 1일~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이가경 작품전〉  
2월 3일~11일  
신세계 갤러리

〈제1회 인천 여성 미술 비엔날레〉  
2월 6일~12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천광역시 미술영재학급 졸업전시회〉  
2월 6일~12일  
갤러리 진

〈삶의 기록과 행위전〉  
2월 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갤러리 소장전〉  
2월 13일~19일  
갤러리 진

〈미안마 어린이 돕기 3인 사진전〉  
2월 13일~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겨울방학전〉  
2월 13일~22일  
신세계 갤러리

〈제4회대한민국제물포서예문인화 서각대전〉  
2월 20일~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이철명 수채화전〉  
2월 24일~29일  
신세계 갤러리

〈이리자 수채화 개인전〉  
2월 27일~3월 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5회 목요회 수채화전〉  
2월 27일~3월 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6회 난 연합전〉  
3월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이관수 일러스트 개인전(동양화)〉  
3월 5일~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 무 료 영 화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오후 2시)  
2월 7일(토) 웨더독  
2월 8일(일) 아가개구리 컷  
2월 14일(토) 아가씨와 건달들  
2월 15일(일) 쥬비나일  
2월 21일(토) 어바웃 어 보이  
2월 22일(일) 그래픽 SE  
2월 28일(토) 꿈의 구장  
2월 29일(일) 피터팬 리턴 투 네버랜드  
문의 \_ 764-9931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영상실 (오후 2시)  
2월 8일(일) 매트릭스 2 : 리로디드  
2월 15일(일) 스파이더 맨 : 돌아온 고블린  
2월 22일(일) 상하이 나이트  
2월 29일(일) 니모를 찾아서  
문의 \_ 832-0915

일	2월	8	〈인제현 콘서트〉 15:00 18: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12-4123	9		23		22	〈소리빛 음악회〉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02-2057-7982	1	3월	29	〈소리빛 음악회〉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02-2057-7982
월													
화	3	〈I Love Classic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 연주회〉 18: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812-2372	10	〈문학여성회관 제6회 정기 연주회〉 19:3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28-8660	17	〈금난새와 함께 하는 C.가장음악회 우리시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19:3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2-533-8744 〈진선스트림 제 2회 제자음악회〉 18:3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819-3334	24						
수	4	〈가족뮤지컬 용궁도깨비〉 (~5) 14:30 15:4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72-4281						25	〈연극 하나와 여러개의 차이는 뭘까?〉 (~27) 19: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01-0515	3			
목	5							26	〈필리아남성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 19:3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17-356-8301	4			
금	6	〈이루마 로맨틱 피아노콘서트〉 19:3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18-627-5004 〈뮤지컬 흥부와 놀부〉 (~8) 11:00 14:00 16: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02-3474-4620	13					27					
토	7							21	〈전구는 정말 무질라〉 (~22) 14:00 16: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13-8040				
								14	〈뮤지컬 보물상〉 (~15) 14:00 16:0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864-8062				
								28	〈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29) 12:00 14:00 16: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2-322-7117 〈이기예OB남성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19:30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22-1990				
								6	〈KBS9극 미워도 다시 한번〉 15:00 18:00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18-5665				

※ 공연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권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 참 기분좋은 '무임승차'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 전역에서  
교통카드를 요금을 낸 뒤 한 시간 안에 시내버스를 환승 할 경우  
무료로 탈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젠 두벽이의 시대, 교통비 절반으로 '출쪽'** \_ 남구 관교동에서 중구 향동으로 출퇴근하는 이장호 씨(34세)는 요즘 버스를 탈 때마다 '공짜'가 왜 좋은지 새삼 느낀다. 우리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시내버스 환승시 무료화 제도' 덕에 갈아탈 때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덕에 교통비도 절반으로 확 줄었다.

'시내버스 환승시 무료화제도'란 말 그대로 선·후불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며 승차를 한 뒤 1시간 안에 다른 버스로 갈아탈 경우 승차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이다.

이씨의 아침 출근 코스는 관교동 예술회관 정거장에서 45번 버스를 탄 다음 신흥초등학교 앞에서 내려 28번이나 5번 버스로 갈아 탄 뒤 중구청 앞에서 내려 회사로 향한다. 그럴 경우 하루 출·퇴근 요금은 왕복 2,500원, 한달이면 6만2천5백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갈아타는 요금이 모두 공짜라 하루 1,300원, 한달 3만2천5백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낮은 회사가 있는 중구청 부근에서 구월동에 있는 교육청 등으로 외근을 나오는 일이 잦다. 물론 한 번에 오는 노선이 없어서 중간에 갈아타야 한다. 바쁠 때는 하루에 서너번 다녀가기도 하다보니 버스 요금만 하루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승차 뒤 한 시간 안에 갈아탄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이 모든 코스를 도는데 단돈 650원이면 해결이다. "나같은 두벽이를 위한 제도같아 너무 반갑다"는 이장호씨는 "참 기분좋은 무임승차"라며 이 제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자랑했다.

**'전국 최초' 시내버스 전 노선 환승 '공짜'** \_ 지난 12월 30일부터 우리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이 제도는 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재 시내버스 24개 업체 115개 노선 1,495대가 버스 옆에 '환승 무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모두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엔 시 전역에서 하차한 뒤 1시간 안에 탑승할 경우 50원을 할인해주고, 경기도는 시·군·구 전역에서 승차 후 2시간 이내 탑승할 경우 50원을 할인해주는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 전 지역'에서 '1시간 이내 무료환승제'가 시행중인 곳은 우리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 이장호 씨의 12월과 1월 한달 교통비 비교

### 12월(무료 환승제 실시 전)

출·퇴근 : 관교동 예술회관 정거장에서 45번 버스(650원, 교통카드 50원 할인) → 신흥초등학교 앞에서 하차 28번, 5번 버스(600원) → 중구청 앞 하차  
**한달 출퇴근 요금 : 하루 왕복 2,500원×25일 = 62,500원**

출장시 : 중구청 앞 15번 승차(650원) → (소요시간 20분) → 석바위 하차 → 33번으로 환승(600원, 환승시 50원 할인 적용) → 소요시간 5분 → 교육청 하차 → 업무 처리에 30분 소요 → 시청 후문에서 33번 승차(650원) → 소요시간 5분 → 석바위 하차 → 15번으로 환승(600원, 환승시 50원 할인 적용) → 중구청 앞 하차  
**하루 1회 출장시 한달 총 소요 교통비 2,500원×25일 = 62,500원**

월 125,000(12월) → 월 48,750(1월)  
**= 한달 76,250원 Save**

### 1월(무료 환승제 실시 후)

출·퇴근 : 관교동 예술회관 정거장 앞 45번 버스 승차(650원) → 신흥초등학교 앞에서 하차 28번, 5번 버스로 환승(0원) → 중구청 앞 하차  
**한달 출퇴근 요금 : 하루 왕복 1,300원×25일 = 32,500원**

출장시 : 중구청 앞 15번 승차(650원) → (소요시간 20분) → 석바위 하차 → 33번으로 환승(0원) → 소요시간 5분 → 교육청 하차 → 업무 처리에 30분 소요 → 시청 후문에서 33번 승차(0원) → 소요시간 5분 → 석바위 하차 → 15번으로 환승(0원) → 중구청 앞 하차  
**하루 1회 출장시 한달 총 소요 교통비 650원×25일 = 16,250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우리시는 지난 2002년 11월 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성인에 한해 버스를 탄 뒤 1시간 이내에 환승할 경우 50원을 할인해주는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해오다 이번 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이용객으로 대상을 넓히면서 전격적으로 환승무료화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무료환승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교통카드'가 필수품이다. 일반 시민들은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일반 은행에서 신용카드처럼 발급받으면 되고 선불교통카드는 카드판매소에서 살 수 있다.

학생들은 실명제 교통카드인 e-학생카드를 발급 받은 뒤 충전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가판점에서 e-학생카드(1,500원)를 구입한 뒤 홈페이지 [www.ebestcard.com](http://www.ebestcard.com)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인천시내 버스 및 택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등 인천 시내버스 상호간 무료환승이지만 앞으로 차차 인천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상호간, 인천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수도권전철, 광역버스 상호간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덕분에 학생이나 주부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은 가계부의 교통비 항목을 부담없이 적어내려갈 수 있게 됐다.

글\_박상영 · 사진\_김성환

## 현금 내면 학생도 '기본 요금 700원'

'중고생 학생현금할인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2월 1일부터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경우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학생할인의 경우 현금사용과 카드사용과의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은 현금승차의 경우 일반버스 요금은 기본요금인 700원, 마을버스는 5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교통카드를 쓸 경우에는 종전처럼 시내버스는 250원 할인된 450원, 마을버스는 180원이 할인된 270원에 탈 수 있다. 우리시는 시내버스 환승무료화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고 카드사용률을 높여 버스운송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교통카드로 승차한 뒤 1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엔 일반과 똑같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440-3884) e-학생카드관련 문의 : [www.ebestcard.com](http://www.ebestcard.com) 인텍크산업(주) 02-577-1472

# 우린 '투잡족' 주말엔 농부가 돼볼까

주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이봉식 씨(43세, 국제엔지니어링 대표)에게는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주말이면 아이들은 늘 어딘가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고 아내 역시 줄곧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자연을 자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매번 장소를 달리해서 여행을 떠나거나 나들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계양구에 살던 이 씨가 생각해 낸 것은 집 근처에 있는 주말농장이다. 이 씨의 가족이 5년 전부터 주말농장에서 상추를 가꾸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아침식탁엔 의례 상추가 올랐고 무공해 상추를 이웃들과 나눠먹으면서 인심 후한 집으로 소문도 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인천 시내에는 우리시와 농협 등에서 분양하는 주말농장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주말농장에는 팽이, 물뿌리개, 삽 같은 부피가 큰 농기구는 비치돼 있고 휴게 시설도 갖춰져 있어 하루 나들이로도 안성맞춤이다. 주말농장은 해마다 2월부터 분양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4월경 분양해서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농장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리농장에서 주말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녹화중인 농구선수 한기범 씨 가족

**농업기술센터  
농사체험농장**  
<http://agro.incheon.go.kr>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춘)에서 운영하는 농사체험농장은 도시인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보면서 농촌과 농민을 이해하고 가족들이 함께 땀을 흘려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자연학습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도 곁들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는 시민농업교실을 운영해 남동구 구월동 남부소방서 뒤에 있는 1천여 평 가량의 농사체험농장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 시민농업교실은 어린이농업교실과 실버농업교실 각 40명으로 운영되는데 각각의 반은 공동으로 300평의 밭을 경작하고 개인에게는 5평 내외의 밭이 분양된다. 또 농촌현장체험, 가정원에 등의 교육과 평가회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농사체험농장을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2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한다. 어린이 농업교실은 초등학생, 실버농업교실은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으로 우리시에 사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무료로 분양되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아 신청자에 한해 2월 28일 10시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농사체험농장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이 원하는 신선한 채소류를 재배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로 된 간이 휴게실과 간이 화장실 기타 소농기구 등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 \_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440-6376)

**조광농장**  
[jogwang.farmkr.net](http://jogwang.farmkr.net)

강화읍에서 전등사로 향하는 길, 이름도 예쁜 아침달마을에 자리잡은 조광농장은 주5일 근무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인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팜스테이를 겸하는 조광농장은 가족들끼리 강화 구경을 한 후 민박을 하면서 농장에서 농촌체험도 할 수 있어 가족 나들이로도 그만이다.

1천여 평에 달하는 농장은 농장주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10평 단위로 분양하고 있는데 평당 분양가는 1년에 1만원으로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운영된다. 분양한 농장은 농장주가 두 차례 발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직접 농업기술도 가르쳐준다. 게다가 고추모 10개, 옥수수 씨앗, 토마토 5주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빈손'으로 찾았다가 '두손' 가득 농산물을 안고 올 수 있겠다.

문의 및 접수 \_ 조광농장 (011-9988-5030, 937-5030)

**두리농장**  
<http://www.durifarm.net>

두리농장(농장주 윤상조)은 알음알음 알려져 주말농장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람보다 알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최근에도 TV프로그램에서 주말농장의 '대표' 주자로 취재를 해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도심에서 멀지않은 계양구 병방동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하기 쉽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농사체험장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 년 열두 달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두리농장의 주말농장은 노지농사체험장과 시설농사체험장으로 구분된다. 1천 여 평에 달하는 노지농사체험장은 4월 중순부터 파종을 하고 농사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분양 받은 사람이 원하는 작물은 모두 심을 수 있지만 주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 고추 등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쉽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하게 된다. 비닐하우스인 시설농사체험장은 2월 말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11월 초까지 계속된다. 주로 추위에도 강한 열무, 얼갈이, 상추, 썩갓 등의 엽채류를 많이 심는다.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다. 주말에 농장을 찾는 이들에게는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기술지도를 해주고 주중에 농장을 방문한 가족에게는 농장주가 꼼꼼하게 파종요령, 작물별 재배법 등을 알려준다.

두리농장은 노지농사체험장과 시설농사체험장을 각각 1구좌 5평 단위로 분양해 200가구 정도 분양 한다. 분양은 1월부터 연중 계속되지만 지난해에 분양을 받았던 가족이 계속 경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올해 새로 분양신청을 하면 대기 순번에 올려놓았다가 사정에 의해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를 분양 받게 된다. 분양가격은 1구좌 5평단위로 노지체험장이 1년에 7만5천원, 시설체험장은 15만원이다.

문의 \_ 두리농장 (545-8977, 552-4435)

**남인천주말농장**  
www.nicac.com

남인천주말농장은 3월부터 회원을 모집한다. 농협에 큼직한 현수막이 붙고 홈페이지에는 분양을 알리는 광고가 난다. 5평 단위로 분양되는데 비용은 1년에 4만원으로 300가구 정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4월 초 개장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농사체험장에는 분양을 받은 이들의 팻말이 준비되는데 가족마다 분양 받은 밭에 독특한 이름을 짓는 것으로 농사가 시작된다. 회원들은 각자의 밭에서 원하는 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면 되는데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넝쿨식물이나 키높이 식물 등은 피하고 상추, 고추, 열무, 배추 등을 심으면 된다. "예년에는 주말농장에서 기른 고추와 무, 배추로 김장을 담근 집도 있었다"는 남인천농협 윤유광 대리의 설명처럼 잘만 기르고 가꾸면 일년 내내 신선한 무공해 채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하다.

문의 및 접수 \_ 남인천농협 (830-9190~3)

**성진농원**  
http://www.nongwon.org



인천국제공항에서 멀지 않은 섬, 장봉도에 자리잡은 성진농원은 영농체험과 바다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에서 하루 밤을 묵은 사람은 나만의 특별한 포도나무를 가질 수 있다. 해마다 포도 봉지를 씌우기 전인 5월 이전에 성진농원에서 민박을 한 사람에게 무료로 포도나무를 분양해 주고 있다. 포도나무를 분양받은 사람은 6월 경 순을 자를 때와 추석 전에 포도를 딸 때 두 차례만 방문하면 분양받은 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는 모두 자기 차지가 된다. 농장에서는 포도나무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공지를 통해 방문해야 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준다. 나무 한 그루에서는 보통 1~2박스의 포도가 나기 때문에 한 철 포도 걱정없이 맘껏 먹을 수 있다.

문의 및 접수 \_ (746-8003)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성환

**■ 인천의 주말농장들**

농장명	모집인원	분양가격	분양시기	농장위치 및 연락처
농사체험농장	80명	무료	2월 중순	남동구 구월동 440-6376 agro.incheon.go.kr
두리농장	200명	노지-7만5천원(5평) 시설-15만원(5평)	수시모집	계양구 병방동 545-8977 www.durifarm.net
남인천주말농장	150명	5평 4만원	4월초	남동구 도림동 464-4401, 830-9190~3(남인천농협) www.nicac.com
성진농원	100명	무료	5월 이전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746-8003 www.nongwon.org
조광농장	40명	평당 1만원(10평 단위)	3하순~ 4월상순	강화읍 불은면 고능리 011-9988-5030, 937-5030 jogwang.farmkr.net
솔밭농장	80명	평당 1만원	4월초	515-4213, 515-1611(계양농협)
꽃매농원	100명	평당 1만원(5평 이상)	3월중	서구 시천동 561-1944
우리관광농원 내 주말농장	20명	평당 1만원(5평 단위)	4월초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937-9130, 011-263-2881
진실농장	100명	10평 8만원	3월 중순	남동구 수산동 462-9918
수산주말농장	30명	10평 9만원	3월초	남동구 수산동 017-320-4674
도림농장	30명	10평 8만원	3월말	남동구 도림동 018-214-7909, 441-7909

# 현장방문으로 ‘生生市政’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월 19일, 한파가 기세 좋게 시작됐다. 그런데 이날 하루, 시청사에는 안시장을 비롯해 시청의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웠다. 그들의 몸은 난방이 잘 되는 회의실 대신 갑작스런 강추위로 매운 바람이 몰아치는 민생현장에 가 있었다. 지역의 현안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사상 첫 ‘현장 간부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날 간부회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안상수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시장도 달라진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매주 열리는 주례 간부회의를 대신해 열린 만큼 이날 현장방문에는 오제세 행정부시장· 박동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1실8국3본부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경제청 3국장 등 간부공무원 전원과 인천발전연구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특별보좌관, 10개 구·구 부단체장 등 간부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침 9시, 시청을 출발한 2대의 대형버스는 첫 번째 방문 예정지인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을 향해 달렸다. 차에서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토의한 다음 두 번째 방문 예정지인 해양생태공원 현장으로 갔다. 폐염전 입구에서 모두 내린 공무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현안을 살폈다.

이렇게 시작한 현장방문은 이날 하루에만 무려 29개 사업현장을 둘러본 강행군이 됐다. 현장마다 각 구의 구청장과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대기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차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관련된 브리핑과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이어졌다. 이들 현장을 다 돌아보느라 아침부터 몰아닥친 강추위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논현지구 개발 사업, 수인선 지하화 사업, 지하철호선 연장 사업, 송도신도시 건설 현장, 송도유원지 개발, 동양화학 폐석회 아적장, 송의종합체육관 정비, 해안동 근대건축물 정비 및 예촌 조성, 월미공원 조성, 이민사 박물관 건립, 차이나타운 조성 및 구도심 개발,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송림동 시영아파트 정비, 청라지구, 연희공원 조성,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경인운하 건설 사업, 검단지역 개발 사업, 계산동 도서관 건립, 서운동 체육공원, 경인운하 도로, 삼산실내체육관 건립, 부평미군기지, 부평문화회관, 부평묘지공원에 이르기까지 시의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했다.

시청을 출발한 지 9시간 만인 오후 6시 부근, 오늘 하루 이동간부회의장이 되었던 대형버스 2대는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시청에 다시 돌아왔다. 이날 현장투어로 시 행정은 시민에게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우 리 고 장 에 듀 테 인 먼 트 (education+entertainment) ⑭ | 아벨전시관

# 세월과 지성담은 ‘책꽂이’

책을 만나는 건 곧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헌책방에는 쉽게 만나지 못할 옛 사람들을 만나는 설레임이 있다.

아벨전시관에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노천명과 톨스토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동구 금창동 배다리 부근에 있는 헌책방 골목에 들어서면 시간이 멈춰선 느낌이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폐허가 된 거리에 이동식 리어카 책방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한때는 30여 곳의 헌책방이 길 양편에 줄지어 있어 ‘작은 청계천’이라고 불릴만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동네이다. 지금은 새 책방과 대형서점들에 밀리면서 7곳의 헌책방만 남아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책 곰팡이가 풍겨내는 내음, 수십년간 책의 무게에 힘겨워하며 등이 구부러진 책꽂이, 천장에 닿을락말락한 책들의 탐·에나지금이나 정형화돼 있는 헌책방의 모습이다.

헌책방 거리 중간쯤에 아벨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원래 양조장으로 쓰이던 건물의 2층을 개조해 만든 이 전시관은 30년 넘게 이 거리의 한복판에서 ‘아벨서점’이란 간판을 내걸고 헌책방을 운영하는 곽현숙씨(53·아래 왼쪽사진)의 변함없는 책사랑의 산물이다. 옛날에 막걸리를 숙성시키던 술창고를 빌려 7개월 동안 청소, 도배, 페인트 칠, 전기공사는 물론 진열장을 손수 망치질하며 짜는 억척스러움 끝에 지난해 개관했다.

제1관, 제2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40평 규모의 전시관은 사방벽이 나무 조각으로 짜여져 있고 아직도 누룩 냄새가 배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소박한 모습이다. 1관에는 배다리 헌책방거리와 청계천 헌책방거리는 물론 중국 북경과 연길시의 뒷골목 노상 책방의 모습 등을 담은 40편의 흑백 사진이 전시돼 있다. 인천 출신으로 현재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는 최종규 씨가 지난 1998년부터 헌책방을 순례하며 헌책 더미 속의 아이들, 휘어진 서가에 비춘 햇살 등 사라져가는 헌책방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낸 것이다. 마치 초등학교 교실 뒤편의 게시판처럼 수수하게 전시된 모습에서 잊었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아스라이 피어난다.

안쪽의 2관은 ‘김억에서 김지하까지’라는 타이틀로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연대별 시집이 전시되고 있다. 그 옛날 감수성 예민했던 어느 여고생이 밤새우며 읽었을 귀퉁이 닳고 누렇게 바랜 시집들이 유리관 속에 자리잡고 있다. 1934년에 재판 발행한 이은상의 노산시조집, 42년 초판본 김억의 동심초, 49년 초판본 노천명의 사슴의 노래 등 고물이 아니라 이제는 ‘보물’로 변해버린 귀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벨전시관은 3~4개월마다 새로운 주제로 전시품을 바꾼다. 첫 전시때는 곽씨가 수집해온 191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각종 잡지 100여권을 전시했다. 두 번째는 시사, 문학 등 장르별 고서를 선보였으며 4월경에 있을 네 번째의 전시회에서는 인천의 작가 혹은 인천을 소재로 한 문학 100여권을 전시할 예정이다.

헌책방거리를 왔다가 우연히 아벨전시관을 둘러보고 난 어느 책손이 방명록에 몇자 남겼다. ‘헌책방은 추억의 고향입니다. 헌책방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마음과 추억이 만나면 푸근함이 전해옵니다. 영원한 푸근함을 이곳에서 가지고 갑니다’

누구나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면 헌책방이 단순히 헌책을 싸게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살찌우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임을 깨닫는다.

글\_유동현 · 사진\_김성환



**찾아가는 길** \_ 경인국철을 타고 동인천역에서 내려 북쪽 편(송현동) 개찰구로 빠져나오면 한복과 이불 등을 파는 중앙시장이 나온다. 오른쪽(배다리)으로 꺾어 시장을 빠져나오면 큰 길 건너편에 헌책방거리가 있다. 또한 도원역에서 내리면 인천세무서와 영화학교 앞을 지나 배다리 쪽으로 내려오면 된다.

**이용안내** \_ 아벨전시관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단체관람을 원할 경우에는 하루 전에 아벨서점(032-766-9523)으로 연락하면 된다. 관람은 무료.

# 굿인cheon 굿뉴스

**교통안전분야 평가 인천이 '최우수'**  
행정자치부가 2003년 12월 교통안전분야에 대해 전국 시·도별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국무총리실 평가기준을 토대로 2003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최근 상반기 3년간('00~'02)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국무총리실 중간평가 결과)에 대해 실시됐다. 그 결과 특별·광역시별 평가에서 인천광역시가 1위, 대구광역시 2위, 대전광역시 3위로 선정됐다. 도별 평가에서는 1위 전라북도, 경기도 2위, 충청남도 3위로 각각 선정됐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440-3864)

**강화·옹진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우리시 강화·옹진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2천286만평이 지난 1월 28일 국방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 또는 완화가 결정됐다. 우선 군사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민간인통제선 남쪽 지역 745만평과 옹진군 자월도 19만평 등 총 764만평이 완전히 풀렸다. 이제 이들 지역에서는 군부대와 협의 없이도 주택 신·축축은 물론 임목 벌채, 토지개간 및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또 각종 규제가 심한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강화군 민통선 북쪽 지역 중 1천257만평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주택신축과 산림·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행위가 군부대와 협의만 거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동안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나친 군사관련 규제로 주택이

남아도 증·개축조차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강화를 비롯해 옹진 구역 17개 읍·면·동 지역 1만 가구가 수혜를 입어 지역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INI STEEL 이웃돕기성금 전달



INI STEEL 유인근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인천시청을 방문해 안상수 시장을 접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과 소외감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655세대)와 독거노인(8,057명)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상수도 행정 '만족해요'

인천 시민들은 우리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19일 까지 인천시민 563명을 대상으로 수질, 민원·서비스, 물절약 등 상수도 행정 고객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시 수돗물에 대해 68.9%(매우 신뢰 9.8%, 어느 정도 신뢰 59.1%)의 시민들이 신뢰하고 있었다. 또 시민들이 마시는 물(식수)의 종류(수돗물 음용형태)는 수돗물이 88.0%(그대로 3.6%, 끓여서 50.6%, 정수기 33.8%)로 작년(77.6%)

보다 10.4%p 증가했다. 또 현재 우리시의 수도 요금 수준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40.3%, 싼 편 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각각 45.0%이었다.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상수도에 대한 이미지·서비스는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46.0%, 그저 그렇다가 45.6%인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8.4%였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870-9225)

### 인천지하철, 송도신도시까지 GO!

인천도시철도 1호선(중점 동막역)이 송도신도시까지 연장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동막역~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6.5km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건설사업은 총사업비 7,045억 원(국비 3,522.5억원, 지방비 3,522.5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6월 착공해 2007년 완공된다. 이 구간에는 6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북쪽으로는 신설된 계양역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건설 예정인 제2연륙교(송도신도시-인천국제공항)와 맞닿게 된다.

문의 \_ 시 도시철도기획단 공사설계과 (440-6487)

### 시 사업 예산, 상반기 중에 76% 배정

우리시는 올 사업예산 1조5,428억원 중 76%인 1조1,725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최근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로 41개 사업

1,662억원 중 81%인 1,344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중앙공원 외 5개지구 공원조성, 서운체육공원조성,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시비 도로개설 사업은 1/4분기에 집중 배정했다. 또 계양정거장 건설, 지하철 송도신도시 연장 건설,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서울7호선 인천 연장 사업, 송도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공사,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의 사업 예산도 상반기에 배정했다.

문의 \_ 시 예산담당관실 (440-2240)

### 대형건설 시공업체 초청 대화



우리시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현재 인천지역에서 시공 중인 공사금액 기준 3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 시공업체 대표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안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건설사 대표에게 "인천지역 건설업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건설 부문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하고 "하도급시 82% 이상으로 적정비율을 유지하고 신기술 및 특수 공법 노하우의 전수를 통해 지역업체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

문의 \_ 440-3743

### 시민 세명 당 한 대꼴로 '마이카족'

2003년 12월 말 현재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774,351대로 집계됐다. 260만 인천시민 세명당 한 대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인 2002년 12월 말 등록대수 752,781대

## 송도미사일기지 영종이전, 대화로 풀었다



송도신도시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연수구 동춘동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우리시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장장접견실에서 영종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북동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한

10개 사항을 담고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들은 "미사일기지 설치의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송도미사일기지 영종 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하지만 우리시는 "미사일기지 이전은 국가안보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를 계기로 운북지역 일대의 개발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해왔다. 이번 합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송도미사일기지 영종이전 문제 해결은 우리시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얻어낸 결실이다.

에 비해 2.87% 증가한 것이다. 2001년 12월 말 등록대수는 696,907대로 2년간 무려 77,444대가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546,016대, 버스 74,383대, 화물 150,128대, 특수 3,824대이다. 군·구별로는 중구 35,758대, 동구 23,738대, 남구 126,061대, 연수구 78,809대, 남동구 123,445대, 부평구 149,656대, 계양구 98,170대, 서구 112,886대, 강화군 21,132대, 옹진군 4,696대 등이다.

문의 \_ 차량등록사업소(819-3838)

### 2004년은 '노인복지 해결의 원년'

노인문제가 사회적 책임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가 '2004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4년을 '노인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우선 노인복지 관련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41% 증액시킨 총 390억7천2백만 원으로 편성해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 우선 지원, 노인복지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박람회 개최 등 6개 부문에 38억5천4백만 원과 기존 복지체계를 개선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 우선 지원 5개 부문에 197억3천만 원을 투자한다. 특히 2003년까지만 해도 1일 평균 20인 이상, 주3회이상 실시하는 노인 무료급식소에만 지원했던 결식노인 문제를 금년부터 전면 지원해 하루 4,5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을 100개소의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구·부평구·계양구에 노인무료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지난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올해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57)

## 인천~칭다오 잇는 뉴골든브릿지5호 취항



인천과 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초고속 여객선 뉴골든브릿지5호가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칭다오를 향해 첫 취항했다. 2만8730톤 급의 이 배는 길이 195.95m, 폭 27m 규모의 크루즈급 페리호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최대 4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이 배는 20피트 짜리 컨테이너 280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수송 능력을 갖추었고 식당, 면세점, 오락실 등의 위락시설도 있다. 최대 27노트로 항해 할 수 있는 이 배를 타면 종전에 19시간 걸리던 인천-칭다오 간의 뱃길이 16시간 30분으로 짧아진다.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5시 인천을 출항하고 월·수·금요일 오후 4시에 칭다오를 출항한다. 여객 요금은 2등실의 경우 11만원, 1등실 12만원, 로얄실 16만원이다.

문의 \_ 위동항운(777-0490)

### 여의도의 7배, '조상땅 찾아주기'로 찾았다

우리시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여의도의 7배나 되는 금싸라기땅을 되찾아 주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오래 전에 사망한 선친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상속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정보센터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찾아주고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개인별 재산소유 검색프로그램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찾아주고 있어 조상의 재산을 찾고자 할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조상의 재산을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시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가장 많은 재산을 찾은 사람은 106필지(61,776㎡=18,687평)의 조상 소유 토지를 찾은 민원인이다.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1,473명이 신청해 우리시가 찾아준 토지는 2,121필지 593만7천096㎡(약 179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6.5배에 달한다.

문의 \_ 시 지적과(440-3481~3),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실국홈페이지>(도시계획국)/주요업무/조상 땅 찾기 안내) 방문

### 갑신년 설맞이 불우가정·사회복지시설 위문

우리시는 갑신년 설을 맞아 1월 15일 부터 20일 까지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맞이 위문을 실시했다. 독거 노인 및 장애 세대 등 불우가정 3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2개소, 노숙자 쉼터 2개소, 여성 쉼터 2개소, 중상이용 사촌 2개소 및 소년소녀가장 498세대 등 총 38개 시설 528세대 3,585명에게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전달했다. 불우가정에게는 20만원의 위문금을, 36개 사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1인당 소고기 200g, 떡 500g을 전달하고, 소년소녀가정과 중상이촌에는 5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전달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440-2653)

### 2004년도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우리시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3월 12일 까지 2004년도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를 정리하고,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를 정리한다. 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및 오류 등을 정리하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엔 과태료의 1/2 까지 감감 받을 수 있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440-2433)

### 공공문화시설 용지 확보 대안 마련

우리시는 앞으로 택지개발 및 재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규모에 따라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대단위 사업 개발지구에 개발면적의 2%를 확보해 시립미술관, 테마박물관, 대중공연장, 문화예술대학 등을 문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택지개발지구 및 재개발지구는 개발면적의 1%이상(최소 1,000㎡ 이상)을 확보해 공공도서관, 복합문화회관, 특화박물관 등을 건립,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제 등으로 점차 늘어가는 문화복지요구에 신속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이처럼 공공문화

시설 용지확보 대안을 마련했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440-3244)

### 2010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위원장 위촉



우리시는 지난 1월 26일 '2010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위원장으로 현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인 신용석 씨를 위촉,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작업에 본격 나섰다.

인천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신 위원장은 프랑스 파리7대학 석사과정, 영국캠브리지대 경제사 과정을 수료했다. 1974년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세계 사격연맹 총회에 한국 수석 대표로 참가해 1978년 세계사격대회 서울 유치를 성공시킨 데 이어 1978년 세계사격대회(서울) 부위원장 및 유럽-남미 담당 위원장, 1981년 바덴 바덴 올림픽총회 한국유치단 핵심위원으로 활약했다. 또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전문위원, 1990년에 결성된 서울올림픽 기념사업 위원회 사무총장, 2000년 2002년 World Cup 조직 위원회 위원장 자문 역할을 역임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내유치 여부는 2월 중 결정된다. 그 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개최 신청국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한 뒤 오는 2004년 7월 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OCA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440-3292)

## 광역버스 새 노선 운행 시작

# 서울 가는길, 빨라졌다



새해 들어 서울 가는 빠른 길이 속속 열리고 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산곡동과 신촌을 오가는 광역버스 1200번이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1월 15일 부터는 1100번(서구청→신촌)이, 18일 부터는 9300번(계산동→강남역)이 각각 운행을 시작했다. 1200번은 부평구 산곡동 한화마트를 출발해 금호아파트, 부평구청, 삼산동(부개주공아파트 맞은편), 강서세무소앞, 합정역, 홍대입구역, 신촌로타리에 정차한다. 1100번은 서구청앞, 검암동사거리(서해아파트 입구), 백석동(청암주유소앞) 강서세무소앞, 합정역, 홍대입구역, 신촌로타리에 정차하며 두 노선 모두 첫차는 인천, 신촌에서 05:00, 막차는 각 지역에서 24:00에 운행한다.

9300번은 계산동 그랜드마트앞에서 출발해 작전동 현대아파트, 갈산동 순복음교회 앞, 부개동 구산초등학교 앞, 서초구 꽃시장 건너편 시민의 숲, 서초구민회관 건너편 양재역, 역삼초교 제일은행 앞, 강남역 하나은행 앞에 정차한다. 첫차는 인천에서 05:00, 강남역에서 06:10, 막차는 인천에서 23:00, 강남역에서 00:30분에 출발한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는 9100번과 9200번에 이어 1200, 1100, 9300번까지 모두 다섯 노선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9100번은 용현동 구터미널, 제물포역앞, 주안사거리, 석바위, 삼성생명 앞, 인천 시청후문, 만수동하이웨이주유소앞, 양재동 시민의 숲 꽃시장 건너편, 서초구민회관 건너편, 역삼초등학교 제일은행 앞, 강남역 하나은행 앞에 정차한다.

9200번은 연수구청 후문, 한화마트앞, 송도유원지앞, 옥련터널입구 우리은행 앞, 인하대 기숙사 앞, 인하공전 장미아파트 앞, 법원 삼거리, 양재동 시민의 숲 꽃시장 건너편, 서초구민회관 건너편, 역삼초교 제일은행 앞, 강남역 하나은행에 정차한다. 이용요금은 각 노선 모두 현금은 2,000원, 카드 1,500원이며 카드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 1,100원, 어린이는 750원이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 440-3882

1100, 1200번은 (주)삼화고속 02-592-4648

9300번은 (주)용일여객자동차공사 881-1790

인천광역시의회 신년 인사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경철)는 지난 1월 3일 11시 의회 중앙홀에서 2004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신경철 의장을 비롯한 현 시의원 전체와 안상수 시장, 심상길·이영환 전 의장 및 전 시의원, 직할시 이전에 시의원을 지낸 김관철·권태기 전 시의원, 김성정 의정회 부회장 등 의정회 회원, 나근형 교육감, 시 교육위원회 안상원 의장,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정태민 회장, 의정발전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경철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시 집행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떤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며 한순간도 헛됨이 없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시민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회를 마치고 의회 중앙홀에 설치한 의정홍보관 개관식과 시사회를 가졌다.

‘의정홍보 영상시스템’으로 만나는 의정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의회 방문객들이 손쉽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홍보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동영상에 담아 방영함으로써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원하는 때에 와서 볼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2004년도 의사일정(예정)

회 기	2004년도	주 요 처 리 안 건	회 기	2004년도	주 요 처 리 안 건
120회 (임시회)	1.27~2.3 (8일간)	-시정보고, 실국별 업무보고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조례 및 기타안건	제125회 (임시회)	7.8~7.9 (2일간)	-제2기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
제121회 (임시회)	3.2~3.12 (11일간)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26회 (임시회)	8.24~9.2 (10일간)	-시정질문 -실국별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22회 (임시회)	4.19~4.29 (11일간)	-시 추경예산 -결산검사위원선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27회 (임시회)	9.14~9.23 (10일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 (상임위원) -조례등 기타안건
제123회 (임시회)	5.17~5.28 (12일간)	-시정질문 -교육청 추경예산,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28회 (임시회)	10.11~10.21 (11일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조례안및기타안건, 행감 · 2005예산준비
제124회 (1차정례회)	6.24~7.3 (10일간)	-결산승인(상임위,예결위) -경제자유도시특위결과보고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29회 (2차정례회)	11.15~12.14 (30일)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 -추경및2005예산안, 조례 및 기타안건

※매 회기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_ 시의회 공보팀

인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포럼 개최



인천문화재단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시민의 문화적 참여와 생산이 확대되고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진정으로 시민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인천의제 21 홍보문화분과(위원장 유재형)는 재단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시민, 문화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설립에 관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설립에 관한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지난 1월 27일 한미은행 인천본부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황흥구 시 문화예술과장, 추연어 시의회 문교사회위원, 김경수 인천일보 문화부장, 민운기 스포이스팀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30센티 서가운동으로 인천의 참모습 알린다

인천에 관한 정보는 어떠할까? 온라인 상에서는 인천에 관한 정보를 그런 대로 찾아볼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인천의 각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의제 21과 인천일보가 함께 나섰다. 인천의 대표서점들과 광곡서, 그리고 각 도서관에 인천관련서적을 비치하자는 ‘30센티 서가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이 정착되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유용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 인천의 모습을 어떠했을까?’에서부터 ‘인천에서 가 볼만한 곳은 어디인가?’, ‘인천의 유명한 먹거리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 ‘현재 인천의 NGO단체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까지 다양한 인천의 모습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인천의제 21에서는 이 운동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한다.

문의 \_ 인천의제 21 실천협의회 440-1544, 인터넷 접수 가능 iagenda@hanmail.net)

담장은 지속적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인천의제 21에서는 지난해 ‘담장 없애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담장을 없애길 희망하는 시민, 학교, 기관, 단체의 접수를 받았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교회와 학교 등에서 담장을 허문 것과 동시에 마을축제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담장 없애기 운동’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담장을 허물고 난 후의 편리함과 쾌적함, 그리고 이웃들과의 돈독한 유대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는다면 예전의 의문들은 단번에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담장을 허문 집을 방문하여 직접 살펴보고,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천의제 21에서는 올해도 담장허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새벽종을 다시 울립시다

얼마전만 해도 동편이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이면 골목길을 청소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내 집 앞 청소는 물론이고,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누구든 나섰던 시절이었다. 그런 정겨운 미풍양속이 언제부터인지 사라져버렸다. 돈을 내고 산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버릴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부터는 누구도 골목길을 청소하려들지 않는다. 청소로 나온 쓰레기를 버리면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골목길, 특히 도심의 골목길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의제 21에서는 ‘2004년 골목청결 으뜸동아리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골목별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청결한 골목길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도록 할 예정이다. 물론, 쓰레기봉투는 의제에서 지원된다. 그런 후에 평가하여 잘 된 곳은 시상하고, 널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록 작은 시도이지만 이를 계기로 이웃이 함께 골목을 가꾸던 우리의 미풍양속이 다시금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_ 인천의제 21 (440-1544)



## “개조 창건의 선봉이 됩시다”

불씨없는 난로 한 대 덩그러니 있는 강당에  
유니폼인 듯 한 근무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학생들처럼 줄을 똑 바로 맞춰 앉아있다.

연사의 강연을 듣는 모습에서

사뭇 긴장감이 배어나온다

식순에 ‘혁명공약낭독’ 순서가 있는 것 보아서

5·16 혁명이 일어난 1960년대 초, 어느 행정기관의 모습 인듯하다.

군복을 입고 뒷짐 진채 강단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 사람 보다  
앞에 내걸린 각종 문구들이 더 위압감을 주던 시절의 한 장면이다. <鉉>

※ 위의 사진은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윤화순 씨가 제공한 것이다. 그녀의 부친 윤기영 (83) 옹은 강화군수, 파주군수를 지냈다. 그녀는 부친의 사진첩에서 몇장의 사진을 골라 들고 <굿모닝 인천> 편집실을 방문했다.

### 도원의 김치국수 시원한 맛 ‘후루룩’

- 김치국수 4,000원
- 계양구 계산동 730
- 552-5858
- 200석
- 80대



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그 옛날의 겨울밤, 어머니가 폭 익은 김치국물에 쓱쓱 말아주신 국수는 아랫목에서 먹는 밤참으로 더할나위 없었다.

그 맛과 똑같은 김치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원이다.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일등공신은 계양산 정기를 받은 지하수를 정수시킨 물. 거기에 김치를 담글 때 배와 양파를 많이 갈아 넣어서 단맛이 은은하게 우러난다.

김치는 보통 얼갈이와 열무를 반반씩 섞어서 담그는데, 살얼음이 살짝 얼 정도인 영하 2~3도 내외로 사나흘동안 특별 제작한 냉장에서 숙성시키면 바로 이 맛이 난다.

그 국물에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고 전라도에서 재래식으로 햇볕에 말린 국수를 쓰니 보통 국수맛과는 비교가 안된다.

이 집의 주력메뉴인 돼지갈비와 김치국수는 궁합이 찰떡이란다.



### 돈포유의 쪽갈비바베큐 참숯불로 구운 고소함

돈포유의 바베큐는 ‘뉴웨이브 숙성바베큐’ 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만큼 독특하다.

어린 돼지의 등뼈와 연결된 갈비뼈를 정향, 계피 등 매콤한 향이 나는 한방 재료와 충분히 삶아 내 고기 특유의 노린내를 없앴다.

그 다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밀간을 한 후 그릴 위에서 참숯불로 구운다. 이때 바베큐 위에 각종 야채와 마늘, 파, 무로 만든 소스가 뿌려지는데 순한 맛과 매콤한 맛이 있어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층까지 즐겨 먹는다.

그릴에서 고기굽는 광경을 훑어서 손님이 볼 수 있어 음식을 먹기 전에 식욕을 돋우며 흥미를 자아낸다.

구워진 바베큐는 손님 테이블에 놓인 데워진 돌판 위에 놓고 먹기 때문에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 쪽갈비바베큐 9,000원
- 부평구 산곡동 182
- 513-9288
- 130석
- 30대



‘핑계 없는 무덤없다’라는 말이 있다. 무덤 속에 묻힌 사자(死者)들은 저마다 갖가지 사연을 품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능과 묘를 기행함으로써 역사적인 인물을 이해하고 그 시대를 재발견해 본다.

# 그들은 죽어서 역사를 남겼다



1

## 서 글 픈 고 려 왕 릉<sup>①</sup>

①고려 왕릉 중 확인된 것으로는 북한 개풍군 내에 있는 태조(현릉)·정종·광종(현릉)·경종(영릉)·성종(강릉)·현종(선릉)·순종(성릉)·예종(유릉)·신종(양릉)·원종(소릉)·충목왕(명릉)·충정왕(충릉)·공민왕(현릉)의 능과 개성 시내에 있는 혜종(순릉), 그리고 장단에 있는 문종(경릉)·숙종(영릉)·명종(지릉)이다.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희종(석릉)·고종(홍릉)만이 강화도에 잠들어 있다.

곤릉포 입고 천하를 호령 하던 왕도 죽으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다지만 강화도에 묻힌 고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강화에는 홍릉, 석릉, 가릉, 곤릉 등 4기의 능이 있다.

**홍릉(弘陵)**, 일부 문헌에는 洪陵·사적 224호)은 고려 23대 왕 고종(1213~1259)의 능으로 강화읍 국화리 고려산 동남쪽 기슭 학생야영장 뒤쪽에 외롭게 자리하고 있다. 재위기간 내내 무신 최씨 정권의 독재와 거란족과 몽고족의 침입으로 평안한 날이 없었던 그는 결국 1232년 몽고의 말발굽을 피해 송도(개성)를 떠나 강화도로 건너왔다. 고종은 1259년 꿈에도 그리던 송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 난리 중에 승하했기 때문에 송도땅으로 옮기지 못하고 강화읍 대산리 연화봉에 능소(陵所)를 지었다가 후에 현재의 장소로 이장했다.

살아서도 슬펐던 고종은 죽어서도 서글프다. 비바람에 닳아버린 비석 두 개와 문인석 한 쌍만이 외롭게 왕릉을 지키고 있다. 한때 주변에는 능을 지키던 시녀들의 거처와 홍릉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최근 왕씨 문중이 세운 재실 만령재(萬寧齋)가 홍능으로 오르는 길에 세워져 있을 뿐이다.

양도면 길정리에 있는 **석릉(碩陵)**·사적 제 369호)은 고려 희종의 능이다. 그는 1204년에 즉위하였는데 그 공을 세운 최충헌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오히려 왕위에 오른 지 7년(1211)만에 폐위되었다. 강화 교동으로 유배당한 후 용유도에서 생을 마감하고 이곳에 묻혔다.

**가릉(嘉陵)**·사적 제 370호)은 고려 원종(1259~1274)의 왕비 순경태후의 능으로 양도면 능내리에 있다. 그녀는 고종 22년(1235)에 원종이 태자로 책



2

봉되자 태자비가 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충렬왕을 낳았다. 고종 31년(1244)경에 사망하여 안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면 길정리에 있는 **곤릉(坤陵)**·사적 제 371호)은 고려 강종(1211~1213 재위)의 왕비 원덕태후 유씨의 능이다. 그녀의 사망연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살 아 서 도 청 백 리 죽 어 서 도 청 백 리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서 태어난 이견창(李建昌·1852~1898)은 조선말기의 문신이자 저명한 문장가로서 양명학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내세운 강화학파의 마지막 대학자이다. 그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20세가 되기 전에 급제한 사람 총 20명 중 최연소(14세) 급제자로 뽑힐 만큼 당대의 신동이였다. 반대파의 증상모략으로 멀리 압록강변과 고군산도 등에서 많은 날 동안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고 갑오경장 이후부터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저술에 몰두했다. 당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당의통략(黨議通略)>을 비롯해 <명미당집(明美堂集)> 등을 펴내기도 했다. 이 나라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그는 광무 2년(1898)에 눈을 감았다. 대쪽같은 청백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듯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야산에 있



1 조서강의 묘 2 고종의 능, 흥능 3 이진창의 묘 4·7 조정만의 묘 5 김재로의 와 문인석 8 류사눌의 묘

는 **이진창의 묘**(시 기념물 제 29호)에는 비석 하나 세워있지 않다.

고려시대의 문신 이규보(李奎報 · 1168~1241)의 묘는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진강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시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된 **이규보의 묘**에는 재실<sup>②</sup>이 복원돼 있고 봉분 앞쪽으로 상석과

석등 각 1기씩이 배열되어 있다. 또 그 앞쪽 좌우로 망주석<sup>③</sup>이 세워져 있다. ①쌍과 시비가 세워져 있는 등 잘 정돈돼 있다.

이규보는 고려의 문호로서 1191년(명종 21) 진사시에 합격한 뒤 최우의 신임을 받아 관직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시문에 뛰어어나(동명왕편)과 8만대장경의 기원문인《대장경각판군신기고문(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그리고《동국이상국집》《백운소설》등을 지었다.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는 고려 충숙왕 때의 명신 허유전(許有全 · 1243~?)의 묘(시 기념물 제26호)가 있다. 그는 고려 원종 말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정승 반열에 올랐다. 1988년 6월 발굴 당시 고려청자잔, 토기병, 송·금대의 엽전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고려 시대를 연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 도 심 의 허 파 , 왕 족 의 묘

계양구 작전2동 경인교대 옆에 있는 **영신군 리이(永新君 李怡)의 묘역**(시 기념물 제43호)은 무덤이라기 보다는 ‘영신공원’이란 명칭답게 소나무 숲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 근린 공원 같은 느낌을 준다. 나라에서 내려 준 땅인 사패지<sup>④</sup>로 현재는 빌라촌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의 산책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리이는 조선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이자 의성군 채의 여섯째 아들이다. 1454년(단종 2)에 태어나 충실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 영신군에 봉해졌으며 부평에 내려와 살다가 1526년(중종 21)에 죽었다. 이곳에는 리이 부부의 묘를 비롯하여 둘째아들인 함원군의 묘 등 자손 14명의 분묘가 함께 있다. 각 무덤에는 묘갈<sup>⑤</sup>과 석물<sup>⑥</sup>이 배치되어 있어 조선시대 왕실 묘제와 시제, 미술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류사눌 묘**(시 기념물 제5호)는 서구 경서동 금산, 인천컨트리클럽 골프장 옆에 있다. 이 묘역에는 류사눌 외에 문화 류씨 가족의 묘 여러 기가

⑤묘갈(墓碣) : 죽은 사람의 이름·세계(世系)·행적, 출생·사망·장례의 연월일, 자손의 개황 등을 돌에 새겨서 무덤의 표지로 삼고, 죽은 사람의 사업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운머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돌비.  
⑥석물(石物) : 석인(石人)·석수(石獸)·석주(石柱)·석등(石燈)·상석(床石) 등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물건.

함께 있다. 류사눌(柳思訥 · 1375~1440)은 18세 때인 태조2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찰사, 병조정랑 등을 거쳐 세종 5년(1423)에는 한성부윤이 되었다. 문장에 능했으며 특히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박연과 더불어 아악을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구 석남동 신광아파트 뒷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의 묘가 한 기 있다. 봉분 모양이 마름모 꼴로 특 튀어나온 형태로 조선 초기 분묘로서 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한 무덤 형태이다. 조선 개국공신 조반의 아들 **조서강(趙瑞康 · 1394~1444)의 묘**(시 기념물 제6호)이다.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그는 이조판서를 그만두고 가정에 내려와 은거했다. 세종은 궁중화가를 보내 가정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고 이후 많은 선비들이 가정을 주제로 시를 지었으며 안평대군은 이

를 모아《석호가정별업도》라는 서화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남동구 운연동 만의골로 접어들어 소래산 서쪽 기슭 오솔길로 오르면 양지바른 곳에 조선시대 문신 **김재로의 묘**(시 기념물 제3호)가 있다. 김재로(金在魯 · 1682~1759)는 숙종 36년(1710) 문과에 급제한 후 사화와 난 속에 부침을 거듭하며 부제학·대사간·우의정·좌의정 등 내외 주요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청나라에 가서 ‘명사(明史)’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송시열의 문하생으로,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뒤 공조, 형조판서 등 주요관직을 지낸 조정만(趙正萬 · 1658~1739)은 남동구 도림동 도림주공아파트 뒷산에 잠들어 있다.

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조정만의 묘**는 규모가 크고 묘비와 망주석 한 쌍,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묘에서 약 100m 떨어진 북쪽 산 기슭에는 인천에서 가장 큰, 높이 2.6m, 너비 1m짜리 신도비<sup>⑦</sup>가 서 있다.

⑦신도비(神道碑) : 왕이나 종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 등 고관의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事蹟)을 기리는 비석. 거북받침 위에 직사각형의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비갓을 올려 놓았다.

글\_유동현 · 사진\_김성환

### 청학동 외국인 묘지

#### 이방인들의 영원한 안식처

옛 송도역에서 청학지하차도 못미처 오른편 청량산 끝자락 아트막한 언덕에는 외국인 묘지가 자리잡고 있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에서 살다가 삶을 마친 외교관, 선교사, 의사, 선원 등 벽안(碧眼)의 이방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당초 인천 각 지역에 묻혀있던 외국인들의 시신을 1914년 각국 대사관에서 북성동으로 함께 이장했다. 그후 묘지 주변이 점차 개발되자 1965년 5월, 그 당시 한적한 교외였던 현재의 장소인 청학동 53번지로 옮겨졌다. 묘지면적 3천140평을 포함해 총 5천760평의 규모인 이 묘역에는 현재 66기가 안치 돼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17기, 독일인 11기, 영국인 9기, 러시아인 5기, 이태리인 3기, 호주·화란인 각각 2기 그리고 프랑스·캐나다·스페인·폴란드·체코·중국인이 각각 1기씩 묻혀 있다. 봉분없이 십자가와 묘비만 세워져 있는 것이 외국영화에서나 봤음직한 묘지풍경이다. 곳곳에 돌벤치가 놓여있어 언뜻 보면 근린공원 같은 모습이다. ‘주는 나의 빛이시니라’ ‘여기 맥카시부부의 사랑스런 딸이 잠들다’... 100년 세월 속에 비바람에 깨지고 씻겨진 묘비에는 죽은 자들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 가슴 설레며 걷다보면 나도 '어여쁜 신부'

'오월의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우아한 오월의 신부가 되려면 진작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가지 일까...만은 신부들의 마음을 가장 달뜨게 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웨딩드레스. 중구 경동웨딩거리에는 예부터 그 시대의 유행에 딱 맞는 웨딩드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들이 여러집 모여 있다. 게다가 골목 주변에는 스튜디오, 양복점, 금은방, 가구점, 한복집, 여행사 등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볼 일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역 지하역사에도 언제부터인가 인천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자부하는 웨딩샵들이 하나들 들어서더니 어느 새 아담한 단지를 만들었다. 쇼윈도우에 비친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짝 없는 처녀라도 괜히 가슴설레게 만드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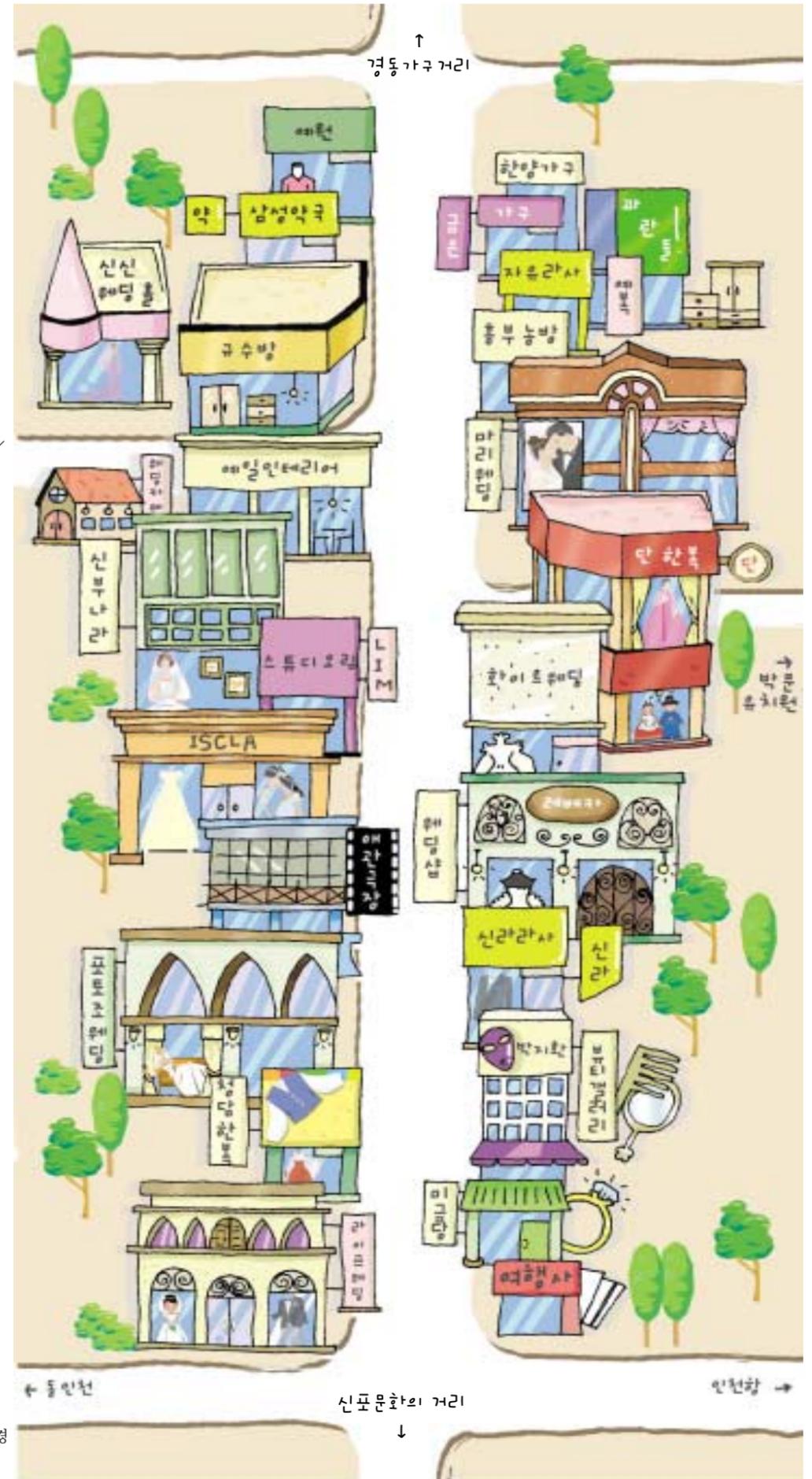


사진\_김성환

## 예술회관역사 웨딩거리



## 경동 웨딩거리



일러스트\_박은정

# 정보화, 첨단화? 우리 손에 달렸죠!

인하사대부고는 오래 전부터 컴퓨터 보급률이 매우 높은 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 학교이다. 일, 이십년 전에는 지방의 학생들이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인하사대부고의 컴퓨터 실습실에 들러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보는 코스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도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을 비롯해 교장실, 각 학년 교무실, 각 과목 사무실, 심지어 각 교실에 이르기까지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배치되어 수업의 디지털화를 이룰 수 있을만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컴퓨터를 담당, 관리하고 이용하는 동아리 전산부가 인하사대부고의 활동 폭 넓은 막강의 동아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 달에는 인하사대부고의 전산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Q : 인하사대부고 전산부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 저희 동아리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컴퓨터 동아리 전산부입니다. InHa-highschool Computer Club[약자 IHCC] 라는 동아리 명문명과 '밧꼴'이라는 동아리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동아리에 '밧꼴'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했는데, 담겨져 있는 뜻이 있나요~?!**  
**A :** 네, 물론 있지요~!! '밧꼴'은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다른 동아리, 타교의 동아리에까지 알려 본보기가 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Q : '밧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 저희 동아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직접 조립, 수리도 하고, 멀티미디어 장치 설치하고 활용하기도 하죠.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각종 경시대회와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다수 입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 학교의 예술제나 축제가 있는 기간에는 저희 동아리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 써서 발표하는 컴퓨터 발표회 "IHCC 전산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방학기간에는 선배님들께 포토스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과 삼차원 애니메이션 제작 수업을 무료로! 듣기도 합니다.

**Q : 컴퓨터 조립과 수리를 하는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원래 컴퓨터 조립과 수리에 실력이 있는 학생들만 모인 동아리인가요~?!**  
**A :**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여러 선배님들과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학교에 A/S를 담당하시는 기사분께도 질문하며 차근차근 배워 저희들도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키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Q : 'IHCC 전산제'에서는 어떤 발표를 하나요~?!**

**A :** 우선, 저희 IHCC 전산제는 저희 학교 축제가 있는 기간(보통 9월 초)에 각 동아리 원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 외부 손님들에게 마음껏 뽐내고자 준비하는 발표회입니다. 동아리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PC게임, 직접 작곡하고 음악파일로 만든 MIDI, 간단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심지어 삼차원 입체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 혹은 좋은 점이 있다면~?!**

**A :** 저희 동아리가 저희학교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말처럼 저희 동아리의 활동 폭이 너무 넓다는 점에서 좀 힘이 듭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아니신데도 저희에게 사소한 것까지 지나친 관심을 가지시며 꾸중도 잦으신 선생님이 계셔서 더욱 힘들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하시다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직접 A/S하는 경우가 많죠. 귀찮을 때도 있고 솔직히 하기 싫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다는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깐 전교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유명인사가 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밧꼴'의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 네, 저희 밧꼴 동아리는 2004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에 신입생 1학년을 대상으로 20기 전산부원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고요, 올해 9월 초에도 IHCC 전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밧꼴. 동아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은 방학기간에도 나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수업을 가까운 선배들에게 직접 보고 들으며 배우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컴퓨터에 관련된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는 동아리의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자세한 밧꼴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cafe.daum.net/ihcc 로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보세요)

글 \_ 김현기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2 · 청소년웹진 MOO 명예기자)

사진 \_ 김성환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는~?!

1971년 설립된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는 한진그룹 재단의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이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다소 높은 지형에 자리잡고 있지만, 이 덕에 교실에서 저 멀리 보이는 서해의 푸른 바다의 모습과 맞은편에 보이는 문학산의 푸른 모습을 보며 환경친화적인 학교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교내에는 넓은 공원이 있고 돌산이 있으며 돌산에는 '용마루 농장'이라 하여 학생들이 직접 닭과 흑염소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 교육의 터가 마련되어 있다. (2003년도 환경교육우수학교로 지정) 또한, 배구부가 있는데, 슈퍼리그 팀의 소속선수의 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많은 인원이 우리 학교의 출신선수들이다. 따라서 배구 명문 고등학교로도 통하는 멋진 학교이다.



이 지면은 우리시의 청소년웹진인 MOO(<http://moo.incheon.go.kr>)의 학생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MOO 기자들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나 우리학교 자랑거리가 있으면 <굿모닝인천>편집실(우편번호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편집팀 앞, 전화 440-2072)로 알려주십시오.



파이팅 인천 | 창단 앞둔 인천유나이티드FC

# K리그, 기다려... 인천이 간다

인천 유나이티드 FC가 일으킬 돌풍이 겨울바람보다 매서울 것 같다. 오는 3월 1일 정식 창단과 함께 그달 말 부터 인천의 명예를 걸고 K리그 그라운드를 누비게 될 인천유나이티드는 현재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의 윤곽을 잡고 겨울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일찌감치 예견된 올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돌풍' 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독일 출신의 명장 베르너 로란트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영입한 구단은 올 들어 수석 코치에 일본 프로축구 삿포로 콘사도레의 장외롱 감독, 코치에 김시석 인천대 전 감독을 선임했다. 이는 국내 어느 구단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코칭스태프라는 평을 받고 있다.

로란트 감독을 보좌할 수석 코치에 내정된 장외롱 코치는 청소년대표와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대우 로얄즈에 입단, 84년 프로축구 슈퍼리그 우승 등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냈다. 그뒤 대우 2군 코치, 아주대 코치, 일본 프로리그 토스 푸투레스 감독, 대우 로얄즈 수석코치, 대우 감독대행, J리그 베르디 가와사키 감독을 거쳐 2001년부터 콘사도레 삿포로팀을 이끌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인천출신의 김시석 코치는 김포 통진 중교, 인천대학교, 국군 체육부대 상무 축구단에서 활약했으며 지난 94년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동안 할렐루야 축구단 코치를 비롯, 인천부평동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인천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역임했고 2001년에는 인천대학교 감독으로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선수단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 용병 3~4명을 포함, 프로선수 15~20명, 아마추어 선수 15~20명 등 40여 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해가고 있는 인천구단은 이미 아마추어 선수 20여 명을 데리고 지난해 강원도 속초와 제주도 서귀포에서 합숙하며 테스트를 겸한 전지 훈련을 가진데 이어 새해가 밝자마자 지난 1

월 5일부터 3주간 제주도 서귀포에서 동계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17일 제주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학 강호인 중앙대와의 연습경기에서 5-0으로 대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 중에는 올 시즌 고교축구 4관왕의 주역인 부평고 이근호 선수와 서울 동북고 이요한 선수 등 청소년대표 선수 출신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 12월 24일 올 시즌 대학축구 MVP인 여승원과 쌍둥이 형 여동원을 계약금 각 1억 5천만원, 연봉 각 2천만원에 5년 계약 조건으로 처음 영입했다.

프로축구 자유계약(FA) 선수들의 인천행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2002한일월드컵 멤버로 올 FA 중 최대어로 꼽힌 안양소속의 최태욱 선수(사진왼쪽)가 한국프로축구 자유계약 선수 사상 최고 '몸값' 인 이적료 11억 원에 고향인 인천팀에 새 등지를 틀었다. 또 2003년 'K리그 베스트 11' 상을 수상한 성남의 김현수 선수를 비롯해 전재호 선수와 안양 소속의 이상현과 안성훈, 박혁순, 전북의 김이섭, 유효진, 임종훈, 전남의 주호진, 포항의 이기부 선수 등이 인천식구가 됐다.

외국용병들의 합류도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인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는 터키 월드컵대표 주전수비수인 알파이 외잘란 선수가 지난 1월 28일 입단, 터키 국가대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프로축구 무대를 밟게 됐고 유고 출신의 마니치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청소년 대표 출신 용병 라돈치치도 인천유나이티드FC의 새 멤버가 됐다.

지난 해 실시된 1차 시민주 공모를 통해 150억원의 창단 자금을 확보한 뒤 현재 2차 시민주를 공모(1월 12일~2월 12일)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는 오는 3월 1일 문학경기장에서 창단식을 가진 뒤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 팀 초청 경기를 펼치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인천문학경기장으로 가서 '오 필승 인천' 을 외치며 응원할 준비를 슬슬 시작해야 할 때이다.



## 프로구단 사상 최고 40억원 유니폼 광고 체결



인천 유나이티드FC가 국내 프로구단 사상 최고 금액인 40억원 규모의 유니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구단은 1월 15일 인천로얄호텔 영빈관에서 GM대우(닉 라일리 사장)와 (주)대덕건설(조완연 회장)과 각각 20억원 씩 모두 40억 원에 유니폼 전면광고 계약을 맺었다.

인천구단의 유니폼광고 40억 원 계약체결은 축구-야구-농구-씨름 등 국내 프로구단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지금까지 최고 금액은 지난 2002년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삼성전자와 맺은 15억 원이었으며 지난 2001년에는 포항 스틸러스가 주택은행과 7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 까지이며 인천구단 선수들은 K리그 홈과 원정 전경기 및 FA컵 경기에서 GM대우와 대덕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누리에플'이 새겨진 유니폼을 번갈아 입고 뛰게 된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1월 5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푸마코리아와 올 1년간 현금 및 용품 등 4억5000만원의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44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앞으로도 유니폼 후원 및 어깨 광고, 경기장 A보드 광고와 함께 연간 회원권 판매 등 재정 자립을 위한 활발한 마케팅 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 우울하고 침침하고 기쁘고 기막힌 시간의 여주인

마정호 씨

**민(民).** 그 낡을 대로 낡은 창고 같은 집의 실내를 말하고, 거기 여주인을 말하자면 빼적거리리는 나 침침한 그늘 냄새 속에 섞여 희미한 안개가 음악 소리로 흐르고 있는..., 10년의 세월을 겸손하게 익어 온 술 맛과, 가난한 시인의 세상 살아가는 의미와, 마음 쓸쓸한 무명 화가의 머리칼과, 뒤척거리리는 저녁노을을 조용히 지켜보아 온 한 하얀 여자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이 써 넣은 여기저기 허름한 벽지 위의 빛바랜 낙서들, 어디서 구했는지 난데없이 걸어 놓은 구한말 미국 보빙사(報聘使) 일행의 기념 촬영 사진, 그 곁에 낯선 사람들을 찍은 또 다른 두 개의 사진들과 거기에 또 여러 해 전에 붙여 놓은 명성황후 오페라 포스터, 이런 것들은 또 여주인 마정호(馬貞浩) 씨의 옆모습쯤이라고 말해야 할까.

마정호 씨는 시인도 화가도 아니다. 성악가도 연극배우도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물론 아니다. 철학 책을 즐겨 읽지도 않고 역사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언제나 간편한 스웨터 차림에 카키복 바지 비슷한 것을 즐겨 입는, 1미터 60이 될까 말까 한 여자다. 굳이 성향을 표현한다면, 언제나 '문(文) 쪽'에 넉넉한 이해를 보내고 또 한 편 '보통 민(民) 쪽'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직선적인 성격의 소녀 같은 중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아니 지금쯤이면 이미 중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녀가 가진 그런 성정의 경사(傾斜)가 이런 풍경을 만들어 내는지 모른다. 까마득히 날짜가 지난 무슨 공연 안내장 따위,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 음악회나 미술 전람회 팸플릿, 그밖에도 이런저런 행사들을 알리는 포스터 등속이 멋대로 붙어있다 떨어졌다 하는 문짝 풍경. 지저분하고 어지럽지만 민(民)의 현관 문짝은 여주인의 마음처럼 이렇게 예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동 게시판 구실을 해 준다.





“전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악 듣고, 가끔 시집 읽고, 그림 보러 가고, 그리고 여기 오는 예술가들, 젊고 착한 대학생들, 청년들, 나이 잡수신 선배들한테서 풍기는 좋은 사람 냄새 맡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해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세계도 웬만한 사람은 겪어 보지 못했을 길고 긴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세월이 있었고..., 삶의 외로움이 있다면 이젠 혼자 얼마든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연륜이고 가슴인가. 그녀에게도 한 때 문학이니 예술이니 하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했었다. 가슴 조이던 불면의 밤들, 파도의 시간들... 지금은 혼자 자유공원 길을 오르고 지하도를 지나는 것이 여유롭고, 말없이 흰 얼굴로 웃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여주인의 분위기, 그리고 이 집의 이런저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우울하고 침침하고 기쁘고 기막히게 하는 트레이드마크인 셈이다.

마정호 씨가 민(民)의 문을 여는 시간은 오후 6시쯤이다. 실내에 백열등이 켜지면 작은 북 모양으로 둥글게 『민(民)』이라고 써서 매단 현관 등에도 등대처럼 불이 밝혀진다. 오늘 저녁에는 우유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오고, 뒤이어 외항선원이 다녀갈 것이다. 문화원 사람도, 지방신문 기자도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설 것이다. 여류화가, 은퇴한 중학 교사, 혼자 사는 사람들, 연극배우, 또는 몇몇 교수들도 갈 데 없이 이 집 문 앞에 닦을 내릴 것이다. 등대! 중구 중앙동 3가 3번지, 육지 속에 자리 잡은 등대. 중앙철물점 옆에 나란히 붙은 낡은 일본식 목조 2층집 민(民)은 이렇게 매일 저녁 육지 한가운데에서 등대가 되는 것이다.

이 오후 6시가, 마정호 씨가 하루를 불 켜는 시간이다. 여주인은 이제 날개를 오그린 사람들을 위해 등대이면서 또 낡은 목선(木船)이기도 한 민(民)을 저어 오롯하게 밤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이윽고 다가올 자옥한 담배 연기와 열기와 잡담과 피어오르는 밤과 생기의 시간. 그녀의 뱃전에 흠뻑 달빛이 내려 물소리를 내고, 무수한 별들이 쟁그랑 쟁그랑 보석처럼 부딪칠 때쯤, 곁들여 장사익의 노래를 청해 한두 곡 술잔 속에 띄우는

것도 이 평화한 민(民)에서 우리가 누리는 멋이요, 호사의 하나일는지 모른다.

“아무나 그저 편안히 오면 돼요. 그리고 편안히 마시다 가면 되고요.”

민(民)이라는 상호가 굳이 지난날의 무슨, 무슨 정권에 대해 도발하듯 일부러 지어 붙인 이름은 아니다. 지금은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 애초 이 집의 창업자였었다는 R군에 의하면 80년대 중반 무렵, 여기가 인천의 심장부였을 때까지는 절대 이런 식의 상호로 영업 허가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무슨 동학(東學) 본부라도 될까봐 관청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다. 이름에서 나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저 황혼을 외로워할 줄 아는 사람들, 밤의 장막에 술처럼 스며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연, 다만 순수하고 보통스러운 사람들이 흔들리며 들어서는 그런 평범한 집이라는 의미 외에는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성 민(民), 아니 그 의미에 더 본래적이고 더 충실하고 가깝다. 이것이 여주인 마정호 씨의 본령(本領)이다.

“어떻게 해서 이 가게를 시작했느냐고요? 고집이지요.”

농담처럼 술 냄새가 좋아서라며 작은 소리로 웃는 웃음 속에 팔자라는 뜻이 묻어 있다. 그리고 찬 듯 더운 듯 체온을 알 수 없는 그 웃음에서 내비치는 은근한 카리스마가 지금은 인근의 몇 집 비슷한 가게들의 대모 노릇까지 하게 한다.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언니요, 누나요, 친구다. 정말 아주 어찌다 한 번 짧게, 잘못된 자유공원 개발에 대해 말하고, 마구잡이 청관 개발에 대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말투 끝에 ‘그놈들!’을 발음해 달기도 하는 썩 녹죽치 않은 면도 있다. 드물지만 어떤 날은 스스로 흥에 겨워 세븐 데포딜이나 트라이 투 리멤버 운운 하는 따위의 노래들을 통기타로 연주하며 부르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쯤, 아니 두어 달에 한 번쯤은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가게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자정 지나 적당한 시간에 문을 닫아걸고는 마음 내키는 친구들과 함께 빠다귀 해장국 집으로 가는 일이다. 평소 말수 적은 이 여주인이 속에 들었던 모든 얘기들을 쉽 없이 털어내며, 청하든 소주든 가시오가피 술이든 아침이 올 때까지 마시는 것이다. 테이블 옆에 수북이 돼지 빠다귀를 발라내면서. 그리고는 환한 햇살 속을 녹초가 되어 돌아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앓으면서 잠들면서 한다는 것이다.

저녁 6시 20분. 겨울 저녁이 춥고 을씨년스러운데 어쩐 일인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붓글씨체로 ‘民’이라 쓴 둥근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 푸근한 등대, 그 사인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어제 밤을 새웠다. 어디 고장이라도 난 것일까. 일찍 찾아왔던 젊은 남녀 한 쌍이 문 앞에 낭패한 듯 서 있다 돌아선다. 동행한 후배 하나가 언 땅의 돌을 툭툭 걷어차며 건넌다.

“하긴 들어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마음은 푸근해요. 하지만 이런 집이 근처 어디 한 군데만 더 있었어도 좋을 텐데..., 그럼 이렇게 길바닥에 서서 이 아줌마 가게 문 열리기를 못내 청승스럽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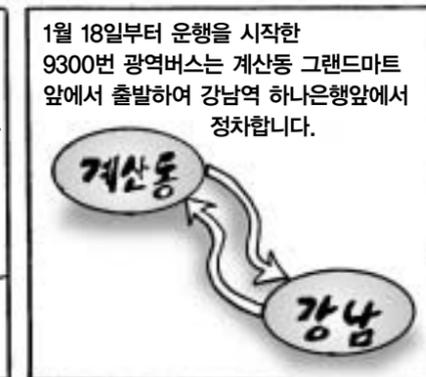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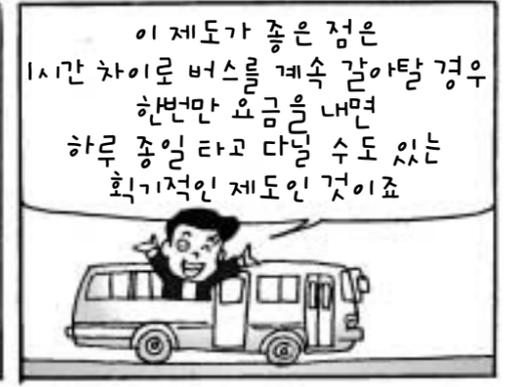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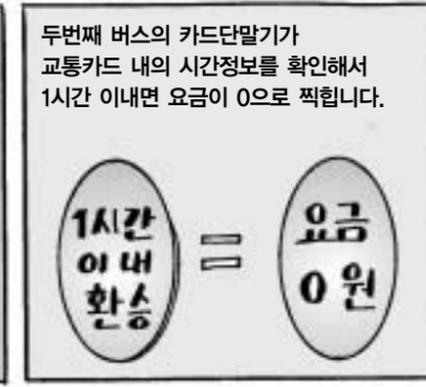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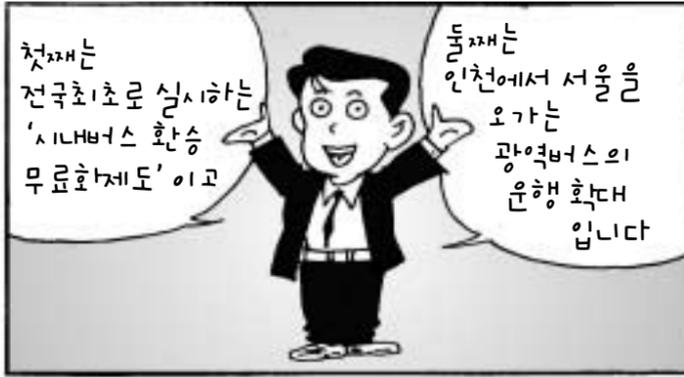
글\_ 김윤식(시인) · 사진\_ 김보섭(사진작가)

# 굿모닝 어진이네

새해들어 인천의 시내버스에 일대 혁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3회)  
시내버스 무료환승 제도 편

글·그림 박두리



# 헌혈하면 심장 질환 걱정 ‘뚝’



## 헌혈은 왜 해야 할까

헌혈은 아무런 댓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를 주어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동이다. 헌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발달된 현대 의학으로도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혈장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밖에 얻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를 흘려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술을 받기 위해 혈액이 필요한 환자, 재생불량성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 환자와 백혈병 환자 그리고 혈우병 환자등 수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헌혈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인천광역시)에는 항상 혈액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많은 분들의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헌혈자가 현저히 적어 혈액 부족 상태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

## 헌혈을 하면 건강에 지장이 없나

우리 몸은 매일 50ml 정도의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 내며 오래된 혈액은 우리 몸 속에서 파괴된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여자는 체중의 7%, 남자는 8% 정도이다. 즉 50kg인 여자는 약 3,500ml의 혈액을, 60kg인 남자는 약 4,800ml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 신비스럽게도 이 혈액중 약 10%정도는 여분으로 비장, 간 등에 저장되어 있어 320ml 또는 400ml의 전혈 헌혈이나 500ml의 혈장성분 헌혈은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혈소판 성분헌혈의 경우 헌혈 후 72시간 이내에 헌혈자 체내의 혈소판 수는 원상 회복된다.

건강한 사람은 헌혈을 해도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헌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헌혈을 하면 혈액의 재생 기능이 자극을 받아 회복이 더욱 빨라지게 되고 젊은 사람의 경우 회복력이 더욱 왕성해진다. 그러므로 헌혈로 빠져나간 혈액량은 나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 개인 차는 있으나 헌혈 후 하루 정도면 대부분의 순환 혈액이 회복되므로 만 16세 이상의 건강한 청소년은 안심하고 헌혈해도 된다.

또한 헌혈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하는 외국의 연구 보고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헌혈에 의해 체내의 철분 저장량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또한 철분이 약간 모자라면 심장병 위험이 줄어드는 반면 철분이 너무 많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 헌혈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 ① 헌혈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함에 가슴 뿌듯한 만족감을 느낀다. 100명 중 1~2명은 가벼운 현기증 등을 느낄 수도 있으나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곧 회복된다. 이 경우에도 건강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뿐이다
- ②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매독검사, 빈혈검사, 그리고 혈압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③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이들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적다고 한다.
- ④ 헌혈증을 받는다. 헌혈 후 받게 되는 헌혈증서는 필요시 본인 외에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으며, 헌혈한 양만큼의 혈액을 무료로 수혈 받을 수 있다. 헌혈증을 수혈 받는 병원에 제출하면 수혈 받은 혈액의 혈액 대금은 공제 받게 된다.(참고로 헌혈증 분실시에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 헌혈하면 AIDS검사도 해 주나

매춘을 하거나 동성애를 한 사람이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혈액만을 공급하기 위하여 에이즈(AIDS) 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헌혈자에게는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에이즈(AIDS) 감염여부를 알기 위해 헌혈을 해서는 안되며, 에이즈(AIDS) 감염여부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해 주고, 개인신상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해 준다.

**혈액에 관한 문의** \_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http://www.bloodinfo.net)(혈액사업본부) [www.icbc.or.kr](http://www.icbc.or.kr)(인천적십자혈액원) 전화 (032) 810-1359, 810-1384 (의무관리실)

글 \_ 조현진(임상병리전문의 · 대한적십자사인헌혈액원 의무관리실장)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전문가들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 440-2073

## 겨울방학의 의미

겨울방학이란, 학생들에게는 아주 기쁜 휴식이다. 하지만 방학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다. 누구나 이런 경험은 있을 것이다. 밀린 일기 쓰기! 거짚으로 지어내서 일기 쓰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

그리고 방학 때 혼자서 집안에만 박혀 있는 일. 방학에는 복잡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시골생각이 난다. 웬지 그곳에 가면 아이들과 실컷 놀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특히 나에게 있어서의 겨울방학은 조용하고 심심하기 그지없다. 학원 가느라 바쁜 도시의 아이들. 나도 인천에 살지만 지금처럼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방학이라는 의미를 되살려서 학교 다닐 때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많아지는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지형 (계양구 용종동)



## 외할머니 덕

겨울방학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의 집은 시골마을이었는데 해마다 겨울방학이면 외할머니 댁에 가곤 하였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세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지금 차로 가면 한 시간도 안걸리지만 그때는 꽤 오래 걸려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할머니 댁도 우리집과 같은 시골이었습니다. 같은 시골이었지만 외할머니 댁 가는 길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막내삼촌이 계셔서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특히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께서 항상 고기반찬이랑 과자랑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곤 했지요. 또 며칠 재미있게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주머니에다 용돈을 두둑하게 주시기도 했구요.

어릴 때는 '외할머니 댁은 부자라서 가면 항상 맛있는 고기랑 과자랑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외할머니의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외손주들 왔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구해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어서 무조건 좋아하기만 했구요. 지금은 홀로 남으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그때 받은 할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메여집니다.

옛말에 '외손주는 아무리 이뻐해봤자 필요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인지 외할머니 찾아뵙기가 참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올 겨울방학에는 아이들과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김영진 (계양구 오류동)

## 병원에서 보낸 겨울방학

내일 아침이면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조금은 두렵고 겁이 나지만 내일을 위해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저는 눈가에 불필요한 낭종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제 눈을 보고 징그럽다는 말을 자주 해서 엄마께 이번 겨울방학에 꼭 해달라고 졸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하던 날 엄마와 함께 병실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두 눈을 수술했는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엄마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아. 아프지 않을거야”라고 하시는 말보다 친구들에게서 “너 눈 징그럽다”라는 말을 안 듣게 된다는 생각에 무서움이 조금 사그라 들었습니다.

안과 선생님이 엄마에게 수술을 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본인 부담이라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겁이 나셨는지 “그래서 우리 현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하고 묻자 “아줌마 한 번도 안 아파 보셨어요? 이것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20%의 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셨지만 엄마께서는 그래도 불안하신가 봅니다.

그 날 저녁 병원 침대에서 엄마와 같이 누워서 잠을 잤는데 걱정도 되고 서로 불편해서 잠을 잘 자지는 못했지만 엄마와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겁이 나서 눈물이 짙짙 나왔습니다. 엄마에게서 “괜찮아 걱정하지마”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혼자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손과 발을 묶자마자 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깨어나 보니 오른쪽 눈을 붕대로 감아 조금씩 화끈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도 가시고 친구들도 문병을 와 주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언니와 동생 그리고 할머니들과 친해졌는데 친해짐과 동시에 퇴원을 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저는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눈이 이쁘게 되어서 좋았지만 엄마께서는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일 동안 엄마와 병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 하시면서 저를 간호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야단만 치시는 엄마 인줄 알았는데 엄마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남현주 (연수구 연수3동)



### 처음으로 타 본 지하철

방학을 맞아 청주에서 올라온 조카 둘(왼쪽, 가운데)이 지하철을 못타봤다며 타고싶다고 해서 인천지하철을 태워줬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이금희 (남동구 간석4동)



### 따뜻한 얼음집

눈이 온 날 친구네 집에 놀러가 아파트 마당의 눈을 모아서 에스키모인들의 집 이글루를 만들었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친구들이 랑 그 속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바깥보다 훨씬 따스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어디갔냐고요? 개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사냥을 떠났죠 ^^

안예린 (중구 송월동1가)

## 이달의 테마 - '나의 겨울방학'

### 꼬마 신사

즐거운 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산타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며 예쁜 표정으로 포즈도 취해보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꼬마 신사.

유덕희 (계양구 계산3동)



### 우리는 영원한 친구

저는 신석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백두산입니다. 겨울방학 할 때 찍은 친구들 사진이에요. 사진 맨 오른쪽이 나구요 경욱, 선영, 미나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 선영이가 전학을 간대요.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영원한 친구 파이팅~! 백두산 (서구 석남동)

### 누나, 내 모자 이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나는 겨울방학을 맞아 사촌동생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새해 설날을 앞두고 '배 선물'이 집에 와서 사촌동생에게 갖다주었는데, 그만 세 살짜리 동생에게는 좋은 '모자 선물'이 되었다.

최선주 (계양구 작전3동)



### 겨울에는 눈을 뭉쳐요

신나는 겨울방학~ 겨울방학엔 뭉뭉하니 해도 눈이 최고!! 밖에 나가서 동생과 함께 눈사람 만드는 일은 겨울이지만 춥지않고 신나는 일!!!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어 보아요^^

박재성 (부평구 갈산2동)

### 눈이 펄펄 내리던 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었습니다. 눈사람 보이죠?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네요^^

최영숙 (남구 용현2동)

## 다음달 테마는 '입학 & 시작' 입니다

입학이나 시작과 관련된 재미있는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2월 20일 까지 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근로자 사회교육생모집**

우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2004년 제1기 근로자 사회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과목
  - 취미교육반 : 생활도자기, 홈패션(기초·중급), 생활양재, 종이조각, 일러스트, 한지공예, 선물포장과 꽃장식, 손님초대요리, 규방공예, 손뜨개, 구슬공예
  - 취미그룹지도반 : 서예와 사군자, 사진, 사물놀이, 단전호흡, 댄스스포츠(살사·라틴댄스), 수채화, 기타, 홈스케이치, 피아노, 뗏상
  - 전문교육반 : 중국어(초·중급), 영어(초급·영작과 AFKN), 일본어(초·중급), 홈페이지제작, 컴퓨터정보화기초
  - 창업 및 자격증반 : 헤어미용, DIY가꾸만들기, 부동산 공·경매사, 생활양재, 출장요리
  - 동호회 : 등산, 탁구, 사물놀이, 마라톤, 사진
- 교육기간 : 2.16 ~ 5.7(12주)  
※부동산 공·경매사 : 2.16~4.8(8주)
- 접수 : 방문 및 인터넷접수
- 모집대상
  - 관내기업체 근로청소년 우선 모집
  -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 동호회는 본 회관 기초과정 이수자
- 수강료 : 무료
- 교재 및 재료비 : 본인부담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본회관 비치) 1부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신분증 사본 중 1부

문의 \_ 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578-6123, 5121 http://work.inpia.net)

**여성 가장 반찬창업 무료 훈련**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노동부의 지원으로 반찬 창업반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교육대상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가장입니다.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8조(보험료액 등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3조 의거해 설치된 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의약계·공익 대표로 구성)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6.75%인상하기로 2003년 11월 28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2006년까지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는 현행 재정 안정대책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 분		현행	개정
직장	보험료율	3.94%	4.21%
지역	등급별 적용점수당금액	115.8원	123.6원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터미널시네마 <태극기 휘날리며> 상영**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터미널시네마에서는 2월 6일부터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를 상영합니다. 장동건, 원빈 주연의 <태극기 휘날리며>는 총무로 안팎에서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 상영일시 : 2월 6일부터
- 관람요금 : 일반 6천원, 학생 5천원
- 주차편의
  - 남측·서측의 터미널직영주차장 : 50%할인
  - 동측·지하의 신세계 주차장 : 백화점 구매영수증 소지자 무료

문의 \_ 터미널시네마 (430-7374, 7377)

- 기간 : 2월 23일 ~ 6월 22일 (4개월)
- 시간 : 월~금 09:00~12:50 (4시간)
- 대상 : 여성가장
- 모집인원 : 31명
- 교육내용 : 한식조리 이론 및 실기, 반찬조리실습, 창업강좌
- 기타 : 교육비, 재료비, 교재비 전액 무료 / 훈련수당지급
- 제출서류 : 직업상담확인증, 호적등본, 재산세(비)과세증명원, 통장사본(우체국, 일반), 사진2장, 주민증, 등본 등

문의 \_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577-6091)



**국악 문화학교 불학기 수강생모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는 인천 국악회관의 국악문화학교에서는 제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습기간 : 3월 1일(월) ~ 5월 22일(토)
- 접수기간 : 2월 2일(월)부터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전화, 인터넷 접수(www.kukakhall.com '네이버'에서 국악회관을 치세요)
- 모집분야 : 가야금, 민요(장구), 풍물, 판소리, 한국무용, 피리, 단소, 해금, 대금
- 기타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강습. 또한 국악회

관에서는 국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연습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통문화예술공연에 한해 공연장도 대관해 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동아리 활동, 학교CA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_ 사)인천예총 국악회관  
(www.kukakhall.com 875-4644, 876-8364)

**미추홀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문화적 삶의 기회를 드리고자 제11기 불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영세민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10여 개 무료강좌를 마련했습니다.

- 강좌기간 : 3월 2일 ~ 5월 29일
- 접수기간 : 2월 2일 ~ 3월 6일
-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구)인천여고
- 대상 : 영아/유아/어린이/청소년/주부/일반인/직장인
- 프로그램
  - 무료 특별 기획 강좌 (3개월 강의) : 데코파쥬, 웨도우박스, 패션페인팅, 서예 교실, 한국화, 데생 & 수채화, 이영유시인과 함께 하는 '문학아카데미',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사진 촬영 교실, 어린이 서예교실, 어린이 명심보감, 일어 회화, 풍물 교실
  - 창업/자격증 대비 교육 : 옷수선 전문반, 꽃꽂이 창업반,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반
  - 공예 : 생활양재, 데코파쥬&웨도우박스, 패션페인팅, 칼라믹스, 꽃꽂이, 퀼트, 에그아트, 스텐실, 포크아트, 수정한지그림, 생활자기&테라코타, 고무찰흙, 홈인테리어(홈패션), 재미있는 종이접기, 선물포장&꽃장식, DIY 가구공예, 생활 목공예, 신나는 찰흙놀이, 짚·풀공예, 살아있는 식물인형 토피어리, 구슬공예
  - 미술 : 데생&수채화, 영재미술아카데미, 수채화&유화, 데생&스케이치, 한국

**할머니대학, 한글반 수강생 모집**

우리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머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할머니대학 무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2004. 3. 2 ~ 12. 14 (10개월 과정)
- 교육운영 : 주 1회 / 매주 화요일 10:00 ~ 12:00(2시간)
- 교육내용 : 건강강좌, 취미강좌, 교양강좌, 현장교육등
- 모집일시 : 2004. 2. 12(목)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명
- 접수장소 : 여성복지관 2층(예식실) 신분증 지참
- 모집대상 :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할머니
- 수강료 : 무료

아울러 한글을 깨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한 **한글반 무료 수강생**도 모집합니다.

- 모집일시 : 2004. 2. 19(목) 오전 9시부터 선착순 40명
- 접수장소 : 여성복지관 2층 사무실, 신분증 지참
- 교육기간 : 2004. 3. 3 ~ 7. 23 (5개월 과정)
- 교육운영 : 주 2회 / 매주 수, 금요일 14:00 ~ 16:00 (2시간)
- 모집대상 : 18세이상 인천시거주 여성
- 수 강 료 : 무료

문의 \_ 시 여성복지관 교육팀 (425-1362, 440-6555-8 women-center.inpia.net)

**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시민육성을 위해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엑셀 등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개설했습니다.

• **시민정보화교육 계획(예정)**

월	접수기간	교육기간	오전(10:00~12:00)	오후(15:00~17:00)	야간(19:00~21:00)
2	2. 9 ~ 2.13	2.16 ~ 2. 27	왕초보컴퓨터따라하기	문서작성(실베)	엑셀2002(중급)
	2.23 ~ 2.27	3. 2 ~ 3.12	인터넷활용(실베)	인터넷활용	
3	3. 8 ~ 3.12	3.15 ~ 3.26	왕초보컴퓨터따라하기(실베)	문서작성(초급)	
	3.22 ~ 3.26	3.29 ~ 4. 2		문서작성(중급)	

※엑셀2002(중급)반은 엑셀2002(기초)반 결원시만 모집

- 교육장소 : 인천사이버시티센터(구월동 한미은행 경인영업점 2층)
- 교육대상 : 관내 거주 시민
  - 일반인반 : 194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0세 미만)
  - 실 버 반 :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0세 이상)
- 모집인원 : 각 43명 (추가접수 5명)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선착순 접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확인)
- 수강료 : 무 료
- 기 타
  - 주차권 : 1시간 무료 (대중교통수단 이용 권장)
  - 음료수 등 음식을 반입금지
  - 교육개시일 결석 시 추가접수자로 대체
  - 해당연도 같은 과정은 3회 이상 수강 불가

문의 \_ 인천사이버시티센터 (440-1501~2 www.inpia.net/cybercitycenter)

화, 서예교실, 미술회화, 홈스케치, 유화&아크릴릭

- 무용 : 한국무용, 발레, 어린이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째저싸이즈&나이트댄스, 파워 힙합 아카데미, 신바람 나는 민속춤
- 노래/악기/국악 : 성악, 동요, 요들, 플룻, 기타교실, 바이올린, 클라리넷, 오카리나, 하모니카, 풍물교실, 단소
- 어학/연극 : 연극교실, 생활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영어동화
- 교양/건강 : 다이어트건강요가, 민속춤, 골프, 사주 역학&관상학, 시와 창작
- 창의력/학습개발: 영어동화, 프리벨 가베스쿨,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 하이파이 션, 마인드맵, 상상력이 자라는 동화여행, 책읽기와 논술교실, 어린이 한자서당, 동화구연, 엄마와 함께 하는 유리드믹스, 엄마랑 아가랑 즐거운 놀이세상, 창의력 과학교실, 어린이 리더십 연기교실, 사이언스아트, 키즈사이언스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www.mchart.co.kr 765-0220, 0250)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특강합니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가 후원하며, 인천YWCA가 운영하는 여성전문직업훈련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노동부 지원 국비훈련과 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1. 실업자재취직훈련 제과제빵기능사**

- 기간 : 2월 16일~ 7월 15일 (5개월)
- 시간 : 월·금 13:00~17:50
- 교육내용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 대비 및 취업 창업전문교육
- 교육인원 : 24명
- 자격대상
  - 고용보험 1회 이상 납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직업지도, 근로의욕증진 이수자)
- 구비서류 : 구직등록필증, 직업훈련상담확인증, 반명함사진 2매, 신분증, 우체국통장, 일반통장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받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에서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육성 등 5개분야 31개 사업에 대해 2004년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사업별로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게 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한 후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 할 계획입니다.

- 사업신청 및 접수 기간 : 2004. 1. 12~2. 14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
- 신청문의 : 홈페이지 : http://agro.incheon.net
  - 작물환경시범사업 : 작물환경팀 (440-6377~79)
  - 근교농업시범사업 : 근교농업팀 (440-6380~83)
  - 생활문화시범사업 : 생활문화팀 (440-6387~88)



**2.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 국비무료훈련 <OA전문가>**

- 훈련기간 : 2월 23일~7월 22일 (5개월)
- 훈련시간 : 14:00~17:50 (4시간)
- 훈련내용 : 컴퓨터 기초부터 OA과정, 자격시험대비

**<한식양식조리기능사>**

- 훈련기간 : 3월 15일 - 7월 14일 (4개월)
- 훈련시간 : 14:00-17:50 (4시간)
- 훈련내용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시험 대비 및 가정요리

**• 훈련대상**

- 등본 상 세대주 여성
- 이혼이나 사별, 남편의 가출 장애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 모자가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구비서류 : 등본1통, 사진2장, 직업훈련 상담확인증, 우체국통장, 일반통장, 재

산세과세증명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또는 모자가정증명서 (해당자)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액 국비무료지원
- 훈련 회차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훈련수당차등지급
- 100% 취업 및 부업, 일자리 알선
- 탁아시설 이용

**3. 2004년 무료특강**

오후 2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로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2월 12일 비즈공예 - 크리스탈 목걸이, 귀걸이 세트
- 2월 19일 퓨전떡
- 2월 26일 주산식 속셈 맛보기
- 3월 25일 꽃장식 소품 만들기

**상담 및 문의 \_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428-6696)**

**사업 고민 쩡~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 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컬러 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폭에 담긴 인천 풍경 ⑩ | 윤주철 <전등사 동문 설경>**



〈전등사 동문 설경〉종이에 수채, 91×65cm, 2000

윤주철 화백은 흥익시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줄곧 인천을 연고로 작업해오고 있는 중견이다. 수미일관하게 구상회화에 천착해오고 있는 그는 박영성으로부터 노회정, 전문영으로 이어지는 인천 아카데미즘의 계보에서 허리를 이루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그림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둔 묘사력과 사물의 재현 의지를 염두에 둔 자연주의가 골간을 이루고 있다.

윤주철은 모더니즘, 또는 아방가르드라는 기치아래 실험미술운동이 범람하던 1960년대에 미술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寫實)에 천착함으로써 인천 아카데미즘에 중요한 계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그림은 강화 전등사 어귀의 겨울 풍경을 수채로 그린 것이다. 고색창연한 석축의 중량감과 방금 내린 서설의 푸근한 향취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름모를 나목(裸木)들은 화면의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도열해 있다. 작가가 어떤 특정한 기량을 발휘하지 않고 부담 없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감을 확보하는 이유는, 이미 그의 작가적 기량이 '무기교의 기교'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글 \_ 이경모(인천대학교 겸임교수/미술평론가)